금주의 법구–〈열반경〉
습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7월 11일)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조계종 해외교구 사무처 法 개정후 4년만에 설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0년간 해외사찰수가 57%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本紙 기획보도 이후, 조계종이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으로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정우) 국내 사무처 설치를 완료했다. 국내 사무처 설치는 지난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 4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本紙 보도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늦게나마 종단과 해외사찰과의 소통창구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내 사무처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해외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해외사찰 감소원인 분석한
本紙 보도 이후 본격 추진
사무처 필요성 공감확대돼

전법회관 3층 사무실 마련
실무인력 배치…업무 점검
부교구장에 정범스님 내정

조계종 총무원과 해외특별교구는 올 6월경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옆 전법회관 3층에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공간을 확보하고 해외특별교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배치했다.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사무처와 전담인력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미 비영리단체 등록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소속으로 해외사찰과 교류해 온 선정화 간사가 국내 사무처 실무인력으로 영입됐으며, 현재 법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안거 기간 중 해외거주승 결계신고 접수 및 해외사찰 관련 민원들을 접수·처리 중이다.

국내 사무처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추가적인 인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사무처는 △해외사찰 및 포교소의 등록·취소 △주지·대표자의 품신 신청 및 절차 이행 △해외지회·연락사무소 설립 및 지정 △해외지회장 선출에 관한 업무 △해외파견승 추천 및 관리 △해외거주승의 신고 및 결계포살 △해외포교 및 해외사찰 홍보 △기타 교구에 속하는 사무 등을 담당·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 스님이 8월 중 해외 방문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대략적인 방향성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해외사찰 및 지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외 사정에 밝은 스님을 지회장 혹은 부교구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사무처 설치는 지난 2017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통해 이미 그 필요성이 공유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현실화되지 못한 채 4년이 지났고, 올해 초 해외사찰 급감의 원인과 대안 등을 분석한 本紙 기획보도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本紙 당시 보도에서 해외사찰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종법과 해외사찰 운영 국가의 법체계·상황의 괴리 △종단과의 관계성 약화 △전담인력 및 관련부서 부재로 인한 관리 미비 등이 지적했다. 취재 결과 해외사찰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거주승 및 해외사찰과 관련한 종무행정 일원화와 전담인력 지원을 통한 행정지원 및 지속성을 중대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또 일선 사찰 현장의 목소리가 종단에 전달되는 토대, 즉 상시적 소통창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보도 이후 해당 사안은 올 3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해외특별교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종책질의가 제기돼 재차 주목받기도 했다.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2017년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업무 일원화를 꾀할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등 전담부서가 부재해 해외유학승 및 수행승, 소임자로 파견된 수백 명의 스님과 100여개 사찰에 대한 종단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무처 설치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총무원 측은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설치와 사무국 인력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해외사찰 지원에 대한 종무행정 체계 개선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구 사무처는 독립운영 체제지만 설치 이후 종무행정이 안정될 때까지 사무국 운영 지원과 종무인력 지원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 설치와 관련, 교구장 정우 스님은 "사무처의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 방향성은 현행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토대로 하되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사무처 공식개소를 알리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8월 12일 열린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채기 만해축전추진위원장, 실천대상 수상자 보각 스님,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문예대상 수상자 오정희 소설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최상기 인제군수, 실천대상 수상자 김하종 신부, 윤성이 동국대 총장, 문예대상 수상자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모두 공존의 길로 나아갑시다"

만해축전위,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 개최

다니엘 바렌보임 등 5명 수상
축전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져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생명·평화·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최상기 인제군수 등이 참석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돌아갔다. 실천대상은 보각 스님, 김하종 신부가 받았다. 문예대상은 오정희 소설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공동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시상식 법어에서 "수상자들 모두 평화, 화해, 이웃에 대한 자비, 인류애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만해축전은 '공존'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모든 생명체는 결국 '공존'의 길을 가야한다는 진리를 함께 깨닫고 실천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다니엘 바렌보임은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지금, 대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가 주는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만해대상 수상을 통해 음악과 예술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보각 스님은 "불교와 사회복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이라며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은 멈추었지만 현장에서의 실천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김하종 신부는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만해 스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흐트러짐 없이 주어진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오정희 씨는 "준엄한 기상과 도저한 자존과 지극한 유정함으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지향해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생을 높이 들어올리는 것, 그것이 문학의 중요한 소임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문예대상을 공동수상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정신에 평화를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만해축전 명예대회장인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만해 스님의 '희망'과 '극복'의 생명철학을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수도권 사찰 법회 수용인원 10% 허용"

조계종,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발표

정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조계종이 일선 사찰의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따라 정기법회(초하루·일요법회 등)시 참석인원을 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참석 가능), 비수도권 사찰은 20%로 제한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찰에서의 모임과 행사·식사·숙박들은 전면 금지되나 비수도권 사찰에서의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는 가능하다. 이 같은 방역수칙은 오는 8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조계종은 일선 사찰들의 일상 속 방역 지침도 내놨다. 이에 따라 사찰 내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도와 예불 집전, 동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찰에서의 공양은 상주대중만 가능하며, 신도 및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 공용 물품 운영은 중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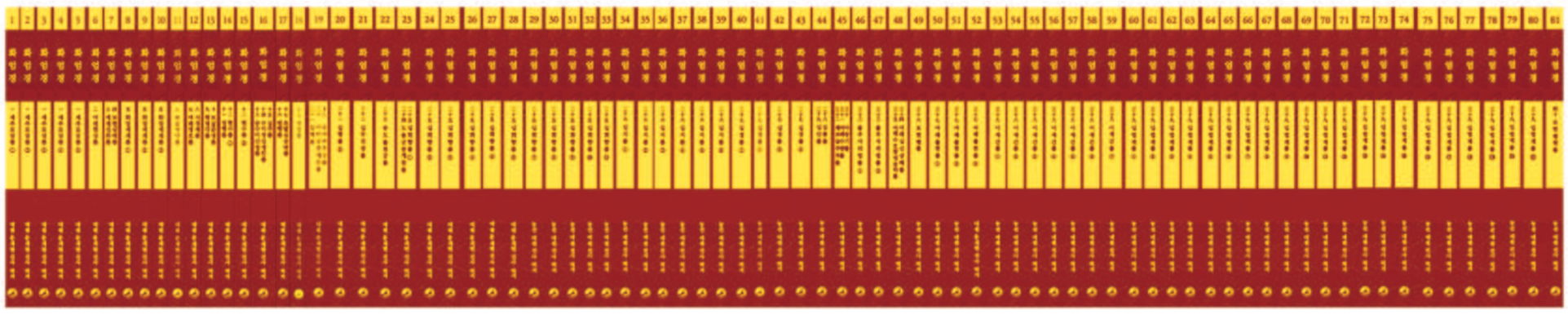
사찰은 경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관리와 발열 체크를 실시해야 한다. 실내공간은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하며 환기대장을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개인위생 강화와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도 주문했다.

조계종은 "방역수칙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으므로, 관할지역의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단 지침을 준수하는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나눔의집 제보자 일부, 횡령·추행 기소

나눔의집 사태 새국면 맞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입적 이후, 나눔의집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월주 대종사의 영결식을 기점으로 일부 대권주자들이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조치가 과도하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나눔의집을 둘러싼 여러 시각들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나눔의집 운영 논란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내부제보직원 중 일부가 횡령과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경기광주경찰서는 최근 내부 제보직원 중 간호조무사 A씨의 보조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나눔의집 할머니 가족과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A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여성가족부 힐링카드를 다른 목석으로, 혹은 임의로 사용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다른 내부제보직원 B씨가 지난해 나눔의집에 근무했던 前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으며, 8월 13일 첫 심리가 진행됐다.

나눔의집에 게재된 경기도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당부 공문'을 무단 훼손해 문서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집 관계자에 따르면 "B씨의 경우 이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고소건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내부제보직원 일부에 대한 혐의가 잇따라 인정되면서 나눔의집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내부제보직원들이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서, 정작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 일부가 횡령과 추행 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순수성에 대한 의혹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대표이사 월주 대종사 원적 후
"경기도, 과도한처분"비판여론
이사 스님들 횡령 의혹 무혐의
재차 조명되면서 귀추 주목돼

여기에 이사 스님들에 대한 경기도 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해지면서, 나눔의집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이사 스님들에 대한 경기도 행정조치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5년간 나눔의집 법인이 시설에 지원한 후원금 합계가 2억 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내부제보직원 일부에 대한 횡령 · 추행 혐의가 잇따라 인정되면서 나눔의집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2억 원은 법인이 시설에 전출한 순수 후원금만을 합산한 금액이며, 시설 직접 후원금과 물품 후원금, 지정 후원금 지원을 비롯해 할머니들의 증언 및 활동비, 여행·간병비, 여가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5년간 후원금 사용액은 12억원 이상이다.

실제 本紙가 확보한 '5년(2015년~2019년) 간의 나눔의집 시설 운영내역서'에 따르면 시설 후원금 총액만 9억 6837만 원으로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증언 및 활동비를 비롯한 부수비용 역시 법인 운영계좌에서 직접 지출됐다. 또다른 이사 스님은 "논란 이후 법인과 시설은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횡령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나눔의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스님은 "정부 지원과 대중 관심이 전무했던 당시부터 나눔의집은 월주 대종사를 중심으로 불교계 원력을 모아 할머니들을 보호해 왔고 세계적으로 다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침탈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평화를 추구하는 역사적 공간 자체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며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한 내부 제보자 일부
혐의 인정돼 검찰 기소 이어져
A씨 횡령의혹, 일부 기소 의견
B씨 강제추행·C씨 약식기소도

한편 나눔의집은 8월 20일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9월 10일 개원

8월11일 의장단 연석회의
종법 제개정안 논의 예정

총림제도 개선을 비롯한 조계종 종법 제개정안 등을 다룰 제22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9월 10일~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정문)는 8월 11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21회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종법 제·개정을 비롯해 종단 현안에 대한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등을 안건으로 5일간 회기로 진행된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종법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종정 감사특별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의 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접수는 9월 3일까지이며, 종책질의는 9월 5일 마감된다.

연석회의는 이날 중앙종회의원 연수일정도 확정했다. 연수는 10월 14일~15일 경남 부곡온천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중앙종회와 상월선원 만행결사순례단,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으로 '한국불교 포교현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된다. 또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들과 함께 부곡에서 밀양까지 국난극복을 위한 순례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상·탄탄·돈관 스님 무투표 당선

중앙선관위, 심사결과
'자격 이상 없음' 결정
은해사 후보 장적스님
'자격 없음' 최종 확정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상 스님, 돈관 스님, 탄탄 스님이 무투표 당선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8월 12일 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상 스님(신흥사), 돈관 스님(은해사), 탄탄 스님(직능대표 포교분야)에 대해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반면 은해사 종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장적 스님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장적 스님이 직접 운영 중인 SN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종단 미등록 법인 선학원 사찰 일선사의 운영권자 또는 관리인으로 판단된다"며 "선거법 제16조, 종무원법 제6조,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에 의거해 은해사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해사 보궐선거는 돈관 스님과 장적 스님 두명이 입후보함에 따라 경선이 예상됐으나, 장적 스님이 자격심사 결과 후보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역임한 인공 대종사 원적


인공당 성욱 대종사

세수 84세, 법납 69세로
8월2일 봉원사에서 입적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공 성욱 대종사가 8월 2일 오전 11시 27분 태고종 총본산 신촌 봉원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84세, 법납 69세.

1957년 봉원사에서 남벽해 화상을 은사로, 조일과 화상을 계사로 득도한 인공 대종사는 1962년 봉원사 강원 초등과 중등과를 수료했다.

1963년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종단 초대 중앙종회의원, 종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총무원부원장을 역임했다. 1998년 봉원사 제36세, 37세 주지로 취임해 봉원사의 수호에 앞장서며 종단 안정과 발전에 기틀을 다졌다. 2001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서훈 받았다.

2003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인공 대종사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G-20정상회의 성공개최 기념 2010영산재'를 성공리에 봉행해 영산재가 세계인의 문화유산이자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인공 대종사의 열반송(涅槃頌)은 이와 같다.

黃面點頭我幾世/ 達磨何來東西去/ 童剪老令衲脫衣/ 汁摩踏影先代位

부처님 이후로 나는 몇 세대가 될 것이며/ 달마는 무엇 때문에 동쪽으로 왔다가 서쪽으로 갔는가 /어려서 머리 깎아 늙은 중이 이제 장삼을 벗으니/ 무엇이 그림자 밟아 성인자리 오르려나

한편, 인공 대종사의 영결식은 8월 5일 신촌 봉원사 특설 발인장에서 엄수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9월 10일까지 접수

특별부문 시상 강화

한해 동안 불교 언론문화 발전과 불교문화 창달에 앞장선 언론사 및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불교언론문화상이 제29회 후보작을 공모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진행하는 이번 불교언론문화상은 대상을 비롯해 방송(TV·라디오)과 신문, 뉴미디어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여한다.

올해는 특별부문이 강화돼 영화와 뮤지컬, 연극, 광고, 미디어교육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의 우수작품 2건이 특별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언론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언론인을 선정해 불교언론인상이 수여된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상금은 1000만원이며, 각 분야 최우수상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과 특별상에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불교언론인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출품작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보도된 것으로 접수기한은 9월 10일까지다. 방송부분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3부씩, 신문은 A3사이즈의 전면기사 5부와, PDF파일을 담은 USB 3부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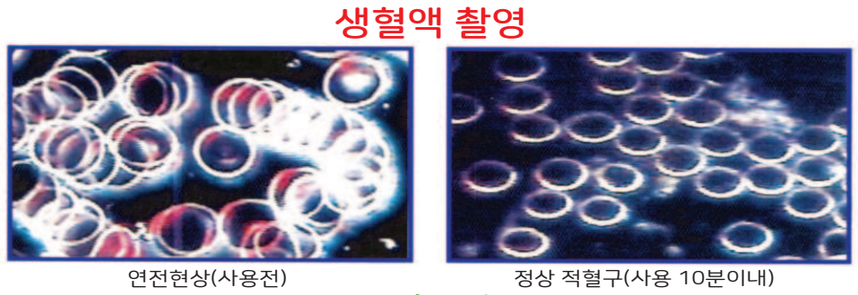
뉴미디어부분은 USB 3부와 함께 지정양식 신청서를 첨부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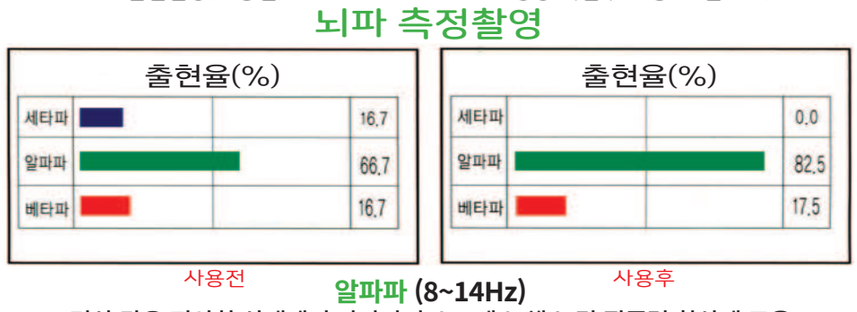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다리에 쥐 나는 것,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페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BLOOD MATE®로 전신(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샤워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샤워타월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짜고 털어버린 후 샤워타월에 물기 있는 BLOOD MATE®를 골고루 묻혀준 후 전신을 샤워타월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하얀 거품이 5~7분 내에 전신에 스며들어 마르면서 전신이 붉어지며 그대로 옷을 입습니다.

BLOOD MATE®로 샤워 시마다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계속하면

◈ 포도상구균 99.9% 정균 감소는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을 없애주며, 일부러 때를 밀지 않아도 되며, 발뒤꿈치의 각질이 제거됩니다.
◈ 어깨와 허리, 팔 다리 쑤시고 아프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머리가 쉽게 희어지지 않습니다.(탈모 예방)
◈ 20~30분 정도 누웠다가 일어나면 사우나 한 것 같이 몸살기 있던 몸의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 혈액 정상화(손바닥이 붉어짐) ◈ 피부 보습(촉촉한 느낌)
◈ 젊은 피부로의 환원(매끄럽고 아기 피부 같은 부드러움과 희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향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순비누: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주)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삼강



세계 최대 국제불교영화제 열린다

날마다좋은날 주최, 8월 26일 개막

최다상영작, 동아시아서 최초
15개국 영화 · 다큐 62편 소개
영화무료…선착순 사전예약도
타 영화제 대비 2~10% 예산
동국대 학생 · 봉사자 참여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세계 불교영화를 한자리에 모은 동아시아 최초 국제불교영화제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이하 OIB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주관하는 이번 OIBFF에는 15개국의 영화 62편이 소개된다. 상영작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영화제에서는 △부처님과 큰 스님 사상을 담은 '연꽃' △사찰과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라일락' △불교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성찰 내용을 담은 '동백꽃' △첨단 사회에 공존 화두를 던지는 '수선화' △미얀마 특별전 등 주제에 맞는 5개의 섹션에서 단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이 상영된다. 또 영화제와 더불어 국제학술세미나, 청소년 영화캠프, 교구 상영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증명으로 하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이 공동조직위원장, 차승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주윤식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전임 중앙신도회장인 이기흥 회장과 차승재 교수님의 오랜 노력으로 영화제가 개막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모시지 못해 안타깝지만 첫 회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불교 자긍심 고취와 포교에도 일조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차승재 OIBFF집행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사찰이 산내에 있어 포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포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진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진행하고자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육조혜능선사비명' 의 '세계일화 조종육엽(世界一花 祖宗六葉)' 이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이번 OIBFF는 동아시아 최초 국제불교영화제다. OIBFF 전에는 종교미디어 트라이시클 창립자 가이타노 마이다가 만든 불교영화재단(BFF)이 주최하는 IBFF가 미국에서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종교방송 BOS창립자 바베스가 만든 유럽불교영화제(BFFE)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007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국제베삭불교영화제(IVBFF)가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 중에 있다.

OIBFF 운영을 총괄하는 김선아 프로그래머는 "미국과 유럽 등에 이어 동아시아에선 최초의 국제불교영화제로 상영작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세계 유수의 불교영화제를 넘어서는 국제불교영화제로 꾸며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 예산에 비해 2~10%에 불과한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 영화 상영을 이끌어 냈다.

개막식은 8월 26일 오후 4시 대한극장 7관에서 내빈과 일반 관객 약 160명(대한극장 7관 최대 수용인원 320명의 50%) 참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작인 'THE CUP(1999년, 94분)' 은 부탄 영화로 티벳불교 스승이자 영화감독인 종사르 켄체 노부의 감독 데뷔작으로 깐느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받은 수작이다.

폐막식은 8월 30일 오후 5시에 대한극장 2관에서 내빈과 일반관객 약 80명 참석으로 진행되며 영화제 결과보고 및 4개 부문(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 시상식이 열린다.

폐막작으로 상월선원 천막결사 내용을 담은 다큐 '아홉 스님(감독 윤성준, 2020, 72분)' 이 상영될 예정이다.

각 상영작 마다 10명의 씨네평가단이 배치되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영화 4편을 선정해 관객상이 수여된다.

차승재 집행위원장은 "제2회 영화제 기획 또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올해받지 않은 공개출품 등을 통해 정기적인 대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항일유산 '진관사 태극기' 보물된다

문화재청, 8월 12일 지정예고
일장기에 태극 · 사괘 형상화
함께 발견된 신문류도 '중요'



광복 제76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광복군 유물 등 항일독립유산들이 대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과 문화재로 지정 ·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진관사 태극기와 데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태극기 유물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 〈사진〉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七星閣)을 해체 ·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됐다. 신문류는 〈경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自由晨鐘報)〉 〈신대한(新大韓)〉 〈독립신문〉 등 5종이다. 이들 신문이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태극기를 숨긴 인물로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白初月) 스님을 주목하고 있다. 백초월 스님은 3.1만세운동 직후 비밀 지하신문인 〈혁신공보〉를 발간해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불교계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만주지역의 독립군 부대에 제공하는 등 국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인물이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 '진관사 태극기' 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형태상으로도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부분과 4괘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으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항일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진관사 태극기'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전산원 명칭, 'DUICA'로 변경 확정

8월3일 이사회 명칭변경 결의
설립 46년 만에 새 명칭으로
서울캠 미래융합대학원 신설

동국대 전산원(원장 손재현)이 'DUICA' 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된다. 1975년 설립된 동국대 전산원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설립 46년 만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8월 3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38회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정관 변경에는 동국대 전산원과 일산사업소, 기능직의 정관 내 명칭 변경을 주요 골자로 했으며, 이사회는 논의 후 만장일치로 변경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전산원의 명칭은 '동국대 DUICA(듀이카)' 로 변경된다. 1975년 정보처리 관련 2년 과정으로 시작된 동국대 전산원은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됐지만, 그간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으로 인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국대 전산원은 내부 공모와 전문업체 의뢰를 통해 6개의 새 명칭을 제안받았고, 내부 구성원 투표를 통해 '동국대 핵심역량교육원' 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국대 DUICA(듀이카)' 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제337회 이사회에서 보고됐으며, 당시 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손재현 전산원장은 "동국대 전산원도 시대에 맞는 새 명칭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관이라는 의미의 '동국대 DUICA' 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향후 건강관리학과 · 반려동물학과 등 시대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려한다. 또한 제2 반야관 증축 등을 통해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특수대학원인 '미래융합대학원' 을 신설키로 결의했다. 미래융합대학원 내에는 융합상담코칭학과가 개설된다. 융합상담코칭학과는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하며 상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과정은 2년 6개월이며, 정원은 40명이다.

이사회 개회에 앞서 이사장 성우 스님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께서 2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해 주셨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승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9년만에 종별 선수권 정상을 차지한 동국대 농구부에 대한 격려금이 전달됐다.

신성민 기자

백담사 일원서 삼보사찰 예비순례

9월 2일부터 3일까지 만해마을서 시작

오는 10월 첫발을 떼는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앞두고 9월 2일부터 예비순례가 인제 만해마을과 백담사 일원에서 진행된다.

상월결사는 최근 9월 2일 오후 6시부터 9월 3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25KM구간에서 삼보사찰 예비순례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순례는 오후 6시 집결 후 오리엔테이션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대한 의미 등이 소개되며, 수칙 등이 공지된다. 3일 새벽 3시 기상 후 용대리를 거쳐 백담계곡을 따라 백담사로 향하게 된다.

백담사는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회향 후 무문관 정진을 한 곳으로, 조계종립 기본선원이 위치하고 있다. 출발지인 인제 만해마을은 오현스님의 유지에 따라 동국대가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예비순례는 천리순례와 마찬가지로 참가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참가자는 사전에 1차 접종 혹은 2차 접종 후 출발 3일전 PCR검사 음성통보를 받은 자로 동행시에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순례 준비물은 만행을 위한 신발과 복장, 손전등 등 개인 물품이다.

상월결사 관계자는 "설악산은 우리나라 선종의 인재를 키워낸 모태와 같은 곳으로 백담사는 현재 종단의 기본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삼보사찰 순례에 앞서 수행가풍 확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2022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 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5(2021)년 8월 16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경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 선정 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1년 9월	2021년 9~10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2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년 8월 16일(월) ~ 9월 6일(월)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1) 2022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 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yong@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행정관 김용태
-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신청기한 엄수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 처리

알아차림·로종… 해외불교 수행 韓서 배운다

중국 베트남 티베트 등서 현지수행, 한국서 알려져
비대면 지도 병행 공통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마음수행에 대한 대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틱낫한 스님의 마인드풀니스, 티베트 로종 수행 등 해외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알리는 자리가 속속 만들어 지고 있다.

자비명상법을 고안해 현대인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앞장서 온 마가 스님은 9월부터 플럼빌리지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자비명상 지도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첫째 주부터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은 분노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총 15주로 과정으로 △플럼빌리지 노래치유 명상 △자비명상 △마음카드, 나의 내면이 궁금해 △부처님의 대화 처방전 △ 일상에서의 명상 △마음의 구조와 원리 등을 내용으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이번 강좌는 팀티칭으로 마가 스님, 등명 스님, 범준 스님, 이운, 유승윤 교수가 함께 한다.

플럼빌리지에서의 수행은 알아차림 명상(mindfulness)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고통과 절망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승불교 수행이다.

9월 6일 마가 스님 특강으로 시작하는 강좌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 자비명상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원 인증교육 과정인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은 마가 스님이 직접 강의하며, 온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다.


청주 보산사에서 진행되는 수행 프로그램 모습. 미국 위앙종의 수행 프로그램을 한국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겨울에는 1박2일간 집중명상도 병행된다. 그동안 500여 명이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각 사찰의 법회나 템플스테이, 학교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노래치유명상과 걷기명상 등 프랑스 플럼빌리지 명상을 통해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좀 더 따듯하게 명상에 몰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매 과정의 시작은 플럼빌리지에서 명상수행을 하신 범준 스님의 치유노래치유명상으로 시작하기에 수업에 대한 기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02)3216-5405

중국 선종 전통인 위앙종 수행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청주 보산사(주지 현안)는 미국 위앙종 참선 강좌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반부터 줌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위앙종은 중국 선종 중 하나로 현안 스님은 그 맥을 이은 영화 스님으로부터 사사 받았다. 현안 스님은 미국에서 '공원에서 참선' 모임을 시작해 7년간 미국에서 중국 전통의 선을 알려왔다. 줌 참여는 무료다. (010)9262-8441

8월 초부터 시민선방을 열고 로종 수행 등 티베트 불교 수행을 전하고 있는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도 8월 2일부터 줌 프로그램을 통한 명상 지도를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줌 명상법회서는 티베트 불교의 기도와 강의, 명상실습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광복절명상을 비롯한 특별 명상과 번개명상모임, 일요줌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용수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행지도의 확장으로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해외 불교의 수행문화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다"며 "온라인 지도와 교자재를 활용해 사찰이라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기에 장점이 있다. 앞으로 티베트 고승을 비롯한 명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셔 한국불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폐막…불자 승전보 '눈길'

한국 금메달 6개 중 5개 불자 손에서

안산·강채영·장민희·김제덕 등
양궁, 펜싱서 활약상 두드러져

8월 8일 막을 내린 2020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한 가운데, 불자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에 달한다.

불자선수들의 활약은 양궁과 펜싱 종목에서 두드러진다. 불자인 안산 양궁 선수는 혼성단체전, 여자단체전, 개인전 등 3관왕을 달성했다. 진천선수촌 법당을 자주찾는 강채영 선수와 장민희 선수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불자인 김제덕 남자 양궁 선수도 양궁 혼성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다.

펜싱에서는 불자인 김정환 선수와 구본길 선수가 김준호, 오상욱과 함께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2연패에는 은퇴를 번복하고 올림픽에 출전한 맏형 김정환 선수의 역할이 컸다. 김정환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귀중한 동메달을 획득했다.

불자인 '에이스' 최인정 선수를 앞세운 여자 에페 단체팀은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역시 불자인 박상영 선수가 이끄는 펜싱 남자 에페 단체팀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지연 선수가 이끄는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역전극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 등에서도 불자인 김소영-공희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등 선전했다. 이밖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역도 진윤성 선수, 사격 권은지 선수 등 차기 대회에서의 기대를 모으는 불자선수들이 많았다.

조계종 체육인전법단은 8월 24일 개막하는 도쿄패럴림픽의 폐막 이후 선전한 불자선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격려 무대를 꾸려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인전법단장 퇴휴 스님은 "코로나19로 기원법회를 열지 못해 불서와 단주 등을 전달하고 영상법회 등을 하는 등 지원했다. 많은 지원을 못했지만 좋은 성과를 올려 다행이다"며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대회였다고 본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나란다축제 10년사 담은 백서 발간

불교계 대표 청소년축제 조명
10년간 가출문제로 함께 제작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10여 년간 진행해 온 '나란다 축제'를 결산하는 10년史 백서 〈나란다축제 10〉을 발간했다.

〈나란다축제 10〉에서는 분야별 축제 현황과 함께 연도별 사진으로 지난 10년을 정리했다. 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나란다축제 기출문제도 한권으로 묶었다.

나란다 축제는 2009년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이 어린이·청소년 포교 진흥을 위해 '청소년 교리경시대회'를 기획하며 시작됐다.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개최 후 프로그램 다양화로 군장병 교리경시대회에 이어 일반인, 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축제로 진화했다. 이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4회째인 2012년부터 교리경시대회 명칭을 '나란다축제'로 바꾸게 됐다.



2014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 주최단체로 참여하며, 종단사업으로 위상을 지니게 됐다.

현재 나란다축제는 'B-Boy 그랑프리대회' '전통 예술 경연대회' '우리말 독송대회' '붓다야 놀자' 등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 연인원 1만여 명이 동참하는 교계 대표 포교 축제로 자리매김 한 상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축제로 개최했으며 108 유튜브 제작 공모전·영화 감상문, 영화 감상평 공모전·캘리그라피 공모전·독후감 쓰기로 진행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은 우리의 보배"라며 "축제가 인연이 되고 수행과 신행 활동의 깊이를 더해 궁극에는 불국토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를 발원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축제가 열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02)515-9351 노덕현 기자

동남아 사찰 긴급지원 2차 물품 전달

로터스월드·전국비구니회
미얀마·라오스 등 9곳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와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동남아시아 사찰긴급지원캠페인' 2차 지원을 완료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찰 9곳이며, 현재 캠페인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찰은 3개국가 총 13곳으로 증가했다.

해당 사찰 내 스님들과 고아 등 취약계층의 공양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찰의 규모와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됐다.

로터스월드는 날로 악화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송지희 기자

불교스카우트, 온택트 명상캠프 성료

8월 1일 줌 활용한 화상회의로 개최…78명 동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은 8월 1일 한국-대만 국제 온택트 어린이·청소년 명상대회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를 개최했다.

한국과 대만 청소년 7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양국 청소년들의 마음치유를 위해 열렸다.

명상캠프에서는 김나연 다르마명상심리상담센터 대표 진행으로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자세' '감정 일으켜보기' '먹기 명상' '감사 명상' '만다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성행 스님은 입재식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대만의 청소년들이 이후로도 연대감을 갖고 꾸준히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임명 허가 신청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비송합의

결 정

사 건 2019비합3003 임시종정선임 (임시총무원장 임명 허가 신청)
신 청 인 이종윤 경주시 배리2길 34-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기현,곽동진
사건본인 대한불교원효종 경주시 배리2길 34-7
대표자 임시종정 이종윤

주 문

사건 본인의 임시종정 이종윤이 사건본인의 임시총무원장으로 김두환 (법명 일륜,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2번길 93 무량사)을 임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4.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강민기** 판사 **김재승**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합장

- 공 고 -

분한 신청·승려증 갱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도 스님께 알려 드립니다.

2019비합3003 (임시총무원장 임명허가 신청)이 2021년 8월 4일로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선임 법원 결정에 따라,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 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대한불교원효종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2020년 폐업 하였기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종도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간 내에 갱신 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공고일로부터 ~ 8월 31까지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합장

전통문화·문화재 향한 애정으로 佛緣 빚다

김동영 前국립고궁박물관장



조선시대 왕실이 사랑했던 화사한 모란꽃이 시대를 뛰어넘어 국립고궁박물관을 장엄했다. 지난 7월 개막해 올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안녕, 모란' 특별전이 한창인 덕이다.

전통에 생동감을 불어 넣은 '안녕, 모란전'은 김동영 前 국립고궁박물관장의 마지막 전시다.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은 전시인 만큼 애정도 남다르다. 고궁박물관 곳곳에 전시된 유물과 그림, 디지털로 만개한 모란꽃을 바라보는 김 관장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뿌듯함이 서렸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랐어요. 박물관 관계자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조선왕실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모란을 배경으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됐으니 개인적으로 뜻 깊고 감사한 일입니다."

김동영 前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안녕, 모란전'을 마지막으로 35년 6개월 간의 기나긴 공직생활

35년 6개월간 공직 생활 후
박물관장 소임 끝으로 퇴임
2011년 문화재청 근무 당시
조계종과 '정책협의회' 구성

을 회향했다. 7월 28일 퇴임식 당일, 마지막 짐정리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의 관장실에서 김 관장을 만났다. 그가 불교계와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찐불자'라는 추천에 급히 성사된 인터뷰다. 시종일관 밝은 미소로 풀어내는 소회 곳곳에 문화재와 전통문화, 그리고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묵직하게 전해졌다.

김 관장은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임을 맡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두루 보직을 거치며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행정직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임도 맡게 됐다. 특히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조계종과 문화재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퇴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와 교류했던 한 관계자는 "불교문화재 관련 전반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이 상당했다"고 평가했다.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불교계가 문화재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계종·문화재청 간 정책협의회 구성이다. 김 관장은 2011년경 처음으로 조계종과 문화재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탄생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된다.

당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을 잇는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매순간 절감했다. 조계종은 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8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문화재청 간의 소통은 그리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그의 확신이 양 기관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위원회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제가 맡았던 정책총괄과장은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직원들에게 조계종은 일종의 민원인이나 이익단체처럼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보유한 문화재가 워낙 많다보니 보수나 수리, 관리를 위한 지원 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빚어진 문제였죠. 성보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법에 의거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인식이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소통창구를 일원화해 부서별로 분산됐던 관련 업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나아가 정책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더 나은 대안을 수립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불교계가 문화재 보유자로서 가진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정당하게 지원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도난문화재와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화재청과의 협업, 위례신도시에 건립 예정이었던 문화재보존센터와 관련된 논의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정책협의회에서 다뤄졌다.

문화재 다량소장처인 성보박물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 김 관장은 "문화재 다량소장처라는 용어 자체가 이 정책협의회에서 탄생했다"며 "문화재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 정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는 일부의 왜곡된 시각에 안타까움도 전했다. 불교문화재 자체가 종교를 넘어 수천년간 쌓인 역사의 흔적이기에 우리민족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이를 종교별로 단순비교하며 불교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 그동안 불교문화재가 종교문화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다른 종교 문화재들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른 종교 역시 세월이 지나 역사에 대한 흔적을 통해 문화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의회는 첫 가동 이후 지금까지 시기와 상황에 따라 구성과 방식이 유동적인 가운데 활발하게 가동되면서 성과를 내기도 했고, 때론 소강상태에 머물렀다가 재가동되는 등의 변화를 맞았다. 이 과정 속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한 논의창구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김 관장은 "지금 생각하면 정책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여러 사안들을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운영돼 더 많은 성과를 일궈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를 향한 남다른 관심은 어린시절 불연에 기반하고 있다. 김 관장은 영주 부석사 바로 아래 위치한 본가에서 나고 자랐다. 신심 깊은 아버지를 따라 사찰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기에 당연한 듯 불자가 됐고,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이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됐다. 문화재청이 대전으로 이전할 때 자원한 것도 문화재를 향한 애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럼에도 정작 종교적 신심이나 신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불교는 마치 주변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차곡차곡 쌓인 불연이 비로소 꽃을 피운 것은 2011년 무렵이다.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즈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던 그의 눈에 집 한켠에 둔 좌복 두 채가 들어왔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조계

문화재 관리보존 위한 논의
정당한 권리로서 가능케 해
매일 절 수행으로 하루 시작
퇴임 후 고향인 영주서 봉사

종 관계자의 선물이었다. 좌복을 펼치고 무작정 절을 했다. 남다른 불심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아버지가 생전 그에게 절수행을 권유했던 기억이 새삼스레 마음에 와닿은 까닭이다.

처음에는 건강에 목적을 뒀다. 매일 새벽 절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보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몸을 낮췄고 어느새 매일 새벽 1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그만의 수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시작한 절수행이 올해로 꼭 10년째다. 세월이 쌓인 만큼 신심도 깊어졌다.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도 일 배 일 배 절을 하다보면 어느새 차분히 가라앉아요. 절수행은 나를 돌아보고 매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퇴임 후에도 제 하루는 절수행과 함께 시작되겠지요. 어쩌면 수행에 매진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35년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공직생활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불자로서의 활동을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8월 중순경 그는 고향 영주로 향한다. 어린시절 추억이 가득한 부석사에서 신행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사도 짓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를 향한 관심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다. 경복궁을 등진 채 모란이 장엄한 국립고궁박물관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더없이 따뜻하다.

글=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도사, 백중 맞아 '목련존자' 공연

8월8일 기장 가마골 소극장에서
통도사, 인도부처님 봉불식 잇는
한국 · 인도 국제 문화교류 일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8월 8일 가마골소극장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통도사 특별공연-목련존자' 를 선보였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다가오는 백중을 앞두고 백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극을 선보였다. 통도사는 8월 8일 기장읍 가마골소극장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통도사 특별공연- 목련존자' 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6일 통도사에서 진행된 인도부처님 봉불식 이후 한 · 인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극 '목련존자' 는 우란분절(백중)의 유래가 된 목련존자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부처님 10대제자인 목련존자가 생전의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를 구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박현철 작가의 원작을 김소희가 연출한 연극 목련존자는 현대적 각색과 해학적 요소를 더해 관객들이 우란분절의 의미를 쉽고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주식회사 월산프로젝트 극단 씨몬이 제작한 이번 연극에는 박정우 · 김미숙 · 이영아 등 많은 연극배우들이 출연해 열연했다. 특히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제 부인 역을 맡은 김미숙 배우는 진지하고 때론 익살스러운 연기로 공연 내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일회로 끝내기엔 아쉽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감동이었다", "우리만 보기 아쉽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특별공연은 기획 당시에 인도 정부와 협업해 특별 합동 공연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한편 통도사는 특별공연과 함께 한 · 인 국제문화교류를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8월 7일부터 22일까지 명월료에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展을 진행한다. 경상남도 미술협회와 경남미술창작소가 참여하는 전시에는 사진, 공예품, 회화, 불화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통도사 사회국장 성오 스님은 "인도정부와 함께 성대하고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이 취소됐고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연극은 경전에 나온 목련존자의 가르침을 수준 높은 연출로 보여줄 수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인도와의 국제문화교류가 발전해 그 결실로 불교문화가 꽃피는 계기가 되고 이번 공연과 전시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부처님을 통도사에 모시기 위해 작게나마 심부름을 하는 심정으로 돕고 노력했다"며 "세계문화유산 통도사가 있는 양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서원하며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은 "한국과 인도의 국제문화교류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후원으로 마무리 되어 의미가 있다"며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작품이 통도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부대중 1만일 기도원력이 곧 불사"

만일결사 2500일 회향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만일결사는 30년간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되는 과정이지요. 결사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의 원력, 그 자체가 곧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불사인 셈입니다."

용인 법륜사가 2014년 8월 17일 입재한 '붓다로 살자 운동 실천을 위한 만일결사' 가 8월 8일 2500일 회향을 맞았다. 햇수로만 7년, 1만일 중 4분기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흔들림 없이 결사를 이끌고 있는 주지 현암 스님은 "만일결사의 핵심은 '기도' "라며 "기도에 기반을 둔 불자들의 실천행은 그 자체로 불사의 과정"이라고 단언했다.

법륜사 만일결사의 특징은 개개인의 기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결사 프로그램을 통해 5대 결사의 취지를 되새기고 불자들의 실천을 돕는다.

매일 1000원을 '좋은 이웃되기 기금' 에 보시해 나눔결사의 실천도 이끈다. 보시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소외 이웃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사용된다. 매년 동지때 팥죽나눔을 비롯한 봉사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결사의 일환으로 매년 6월 6.25 전쟁 당시 희생당한 고혼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하며, 문화결사인 산사음악회, 사찰음식 대중공양과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활용한 동참도 더욱 확대됐다.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되레 결사대중들의 원력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스님은 "부처님 가피로 기대 이상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다"며 "어려운 시기 결사대중들의 원력이 더 폭넓게 모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일결사가 곧 세상을 맑히는 불사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끝까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륜사 만일결사 회향일은 2042년 1월 1일이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31)332-5703

송지희 기자

천진불어린이합창단聯 제2대 회장에 황산

8월 6일 이 · 취임식 봉행, "한국불교 미래 밝도록 노력"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8월 6일 부산 영도 무진선원에서 제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제2대 회장 황산 스님.

어린이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의 제2대 회장에 울산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이 임명됐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이하 천진불합창단)는 8월 6일 부산 영도 무진선원에서 제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재 지현 스님, 초대회장 성원 스님, 2대 회장 황산 스님, 부회장 목종 스님, 지도법사 현수 스님 및 소속 회원사찰 스님들이 참석했다.

2대 회장 황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총재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대회장 성원 스님은 이임사에서 "음악을 통해 어린이가 불법을 만나도록 소명을 갖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포교를 위해 신임 회장스님과 소속 회원 스님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성원 스님은 2016년 취임 후 천진불합창단을 이끌어 왔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총재 지현 스님은 "천진불 포교를 원력으로 하고 신심을 바쳐서 노력하면 어린이 포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남파라미타 · 창원한마음병원 업무협약

8월 5일 한마음병원서 체결…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남파라미타와 창원한마음병원은 8월 5일 창원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경남파라미타)와 한양대 창원한마음병원(이하 한마음병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의 문화지킴이 활동을 위한 보건 후원 활동을 펼친다.

경남파라미타(회장 김재호)와 창원한마음병원(이사장 하충식)은 8월 5일 창원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남파라미타 문화재지킴이 학생 및 학부모, 지도교사 등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학교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업무 협약식에는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김재호 회장, 최두찬 초대회장, 양수만 前 회장, 탁미순 대외협력이사, 신동원 사무처장, 성규종 감사, 도인선 양산지회장, 전미선 사무장, 문화재지킴이 대표 학생들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 최경화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경남파라미타는 경남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1028명과 지도교사 40여 명이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나누우리, 불우환아 치료 후원금 전달


태고종 구호기관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7월 30일 밀양 법성사에서 불우환아 치료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태고종 구호기관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도산)가 7월 30일 밀양 법성사에서 불우환아 치료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나누우리는 매년 국내 구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만 15세 이하 환자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후원금은 총 200만 원으로 밀양시에서 추천한 김모 아기(만1세)와 김모 어린이(만15세)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됐다.

만1세인 김모 아기는 출산과정에서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산모 또한 출산쇼크 뇌경색으로 수술치료를 하는 등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다.

만15세의 김모 어린이는 이혼한 친모의 정서적 학대를 겪었으며 치염 및 중이염을 앓고 있다.

한편, (사)나누우리는 캄보디아 스님들을 위한 긴급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나누우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탁발 금지령이 내려져 스님들과 어린 동자스님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긴급지원활동을 펼쳐 배고픈 스님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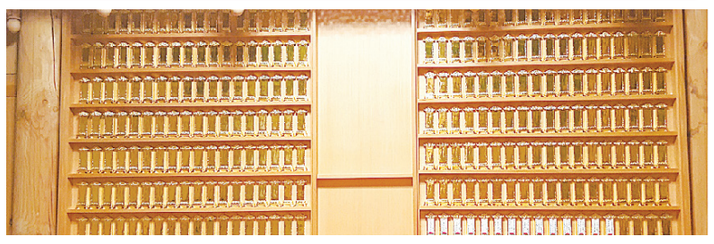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공생 원력 30년

8월 8일 개원 30주년 기념 법회 봉행

사부대중 50여 명 모여서
30년불사 되짚고 새 발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행 선사의 공생실천 원력을 이어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8월 8일 울산지원 법당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과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천주현 신도회장, 박정애 신도회 부회장, 박태엽 초대 신도회장, 황경환 2대 신도회장 등 전현직 신도회 임원 및 이상헌 울산시 북구 국회의원, 이동권 울산시 북구구청장, 정갑윤 前 국회부의장, 임채오 울산북구의회 의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만 법당에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불교도노래 △한마음선원가 △부처님과 대행선사 전 꽃공양 △입정 △대행선사 영상법문 △경과보고 △내빈소개 △개원 3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격려사 △축사 △인사말 △30주년 기념품 전달 △코로나19극복 이웃돕기 성금전달 △30주년 축하 떡케익 절단 △선법합창단 음성공양 △사홍서원 및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국내외 각 지원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닫힌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일종의 통신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 스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며 "1991년도 개원법회 법문을 곱씹어 보면, 초심자부터 수행자까지 아우르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다. 포항지진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울산지원 개원 이후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은 단순한 역경이 아니라 또 다른 정진의 과정이었다"고 울산지원 건립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울산지원 도량이 30주년을 맞은 이 시점은 큰 의미가 있다. 팬데믹 시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맞이한 개원 30주년이 앞으로 코로나와 공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8월 8일 울산지원 대웅전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그동안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중들의 사연과 인사들이 오갔다.

천주현 신도회장도 "울산지원은 199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도분들의 원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30년을 넘어 다음 생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행 큰스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법회서 외빈 축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됐다.

외빈을 대표해 정갑윤 前 국회 부의장은 "30주년을 맞을 때까지 처음부터 지켜봤다. 초기의 태화동 시대와 IMF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지금의 천곡동 시대를 맞은 것은 많은 신도분들의 원력 때문"이라며 "한마음선원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많은 분들의 안식처가 됐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역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는 시점서 한마음선원의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도 "대행 큰스님께서 올림픽선수촌 법당 건립에도 기여하시고, 불자선수들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셨다는 보도를 보면서 울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며 "울산지원 또한 대행 스님의 수행력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터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회를 마치기 전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사하라는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울산지원 불사의 기반이 됐다. 지역서 불사를 하면 세계적으로 마음공부를 하는 한 분 한 분이 늘고, 정신세계도 발전한다는 말씀이셨다"며 "근본자리에서 잘 관하고 맡기고 놓으며 앞으로의 역경도 이기고자 한다. 부처님 가르침, 큰스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30년사

1991. 2. 23
대행 스님, KBS울산홀 여성교양강좌 초청법문

1991. 8. 11
울산 중구 태화동 451-17번지서 울산지원 개원

1992. 10. 11
법형제 법회 및 보살신행회, 청년회, 학생, 어린이법회 창립 / KBS울산홀서 대행 스님 초청대법회, 불교음악회 봉행

1994. 6. 12
KBS울산홀서 울산호국영령대법회 및 합동천도재 봉행

1997. 3. 23
울산 북구 천곡동 927-7번지에 울산지원 신축불사 시작

1999. 11. 28 대웅전 상량법회 거행

2001. 4. 22
법당 준공대법회 진행, 거사합창단 창단

2003. 4. 20
도량탑 제막식 봉행

2004. 11. 7
세종문화회관서 간암환자 돕기 합창

2005. 10. 30
울산문화예술회관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합창제 개최, 성금 3000만원 기부

2008. 9. 27
소년소녀가장 돕기 산사음악회 개최, 1000만원 기부

2009. 11. 11
재단법인 울산북구 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후원단체 등록

2012. 4. 울산지원 장학회 발족

2014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 후원사찰 협약

2016. 9 태풍 수재민 돕기 3000만원 기부

2019 어린이 합창단 창단

금산사, '월주스님 추모게시판' 개설

생전 인연있는 분들의 대종사와 인연 일화 게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보살행과 행원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온라인상에 마련됐다.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 일원)는 월주 대종사 종단장 후 금산사 홈페이지에 추모게시판을 마련하고 생전 스님과의 인연, 추억, 스님의 보현행원을 기리는 글과 사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0일 현재 12편의 글이 올라와 있는 추모게시판에는 '스님~ 그리움을 어찌 합니까' '산새들조차 웁니다. 극락왕생하소서' '스님 속환사바하소서' 등의 글과 월주 대종사 상좌 도법 스님의 '은사 스님의 삶을 기리며' 등 추모글들이 올라와있다.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은사 스님을 기리며'라는 글에서 "다시 눈감고 살아온 이 순간까지의 세월을 떠올려 보면 평소 도법은 스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따뜻한 밥상 한 번, 용돈 한번 올리지 않아 불효라고 말하면 그 첫 자리는 제 자리다"며 "뒤늦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스님께서 보여주신 깨달음의 실천인 보살행 수행을 내 삶으로 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그 자리가 효도라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은사스님을 기렸다.

금산사 관계자는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게시판은 인연 있는 분들이 사연을 나누며 대종사님이 걸어왔던 보현행원의 삶을 함께 추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월주 대종사 추모 게시판은 1주기인 2022년 6월까지 운영하며 게시된 글들은 추후 책과 영상으로 제작하는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사업'에 활용된다.

게시판 접속은 금산사 홈페이지(geumsansa.org)에 접속 후 초기화면에서 '지대방'의 '월주스님 추모게시판'을 클릭하면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진으로 조명한 오대산 三大和尙의 삶과 수행

'사진으로 만나는 三大和尙' 展
월정사박물관 22년 3월31일까지
한암 · 탄허 · 만화 사진 3백여 점

오대산 삼대 화상으로 불리는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을 사진으로 만난다.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8월 8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사진으로 만나는 오대산 삼대화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의 생전 기록 사진 300여 점을 선보이며, 사진을 통해 삼대 화상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한국 근현대불교사를 살펴본다.



삼대화상 전시가 진행되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모습.

한암 선사(1876~1951)는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지키고 법맥을 계승하여 근대 한국불교를 중흥한 대표적인 인물로 참선을 중시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함께 갖춰야만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평생 이를 실천했다.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의 영향과 세속화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한국불교를 계몽하고 전통회복과 통합에 힘썼으며, 1941년 새롭게 출범하는 조계종의 초대종정을 역임했다. 이후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퇴각하면서 상원사를 소각하려는 위기를 온몸으로 지켜내고 그 해 3월 21일 세수 75세, 법랍 54세로 좌탈했다.

탄허 대종사(1913~1983)는 근현대 한국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다. 독립운동가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탄허 스님은 10대 시절 기호학파 학통을 이은 이극종을 스승으로 한학연구에 매진했으며 22세 때 한암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한암 스님의 법통을 계승하여 전소된 월정사를 중건했으며 교육만이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오대산 승려연합수련원(1936), 오대산 수도원(1956)을 통한 교육사업과 후학양성에 힘썼다. 평생을 걸고 이룩한 〈화엄경〉 및 여러 불교 경전 번역 사업을 통해 '불경의 한글화'를 펼쳤다. 특히 〈신화엄경합론〉 완간(1975)으로 이루어낸 화엄학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1983년 6월 5일 세수 71세, 법랍 49세에 입적했다.

만화 선사(1922~1983)는 오늘날의 월정사 대가람을 일구어낸 주역으로 한암 선사의 승가오칙을 계승하였으며, 한국전쟁 중 전소된 월정사를 중창하고 스승인 탄허 대종사의 교육에 대한 원력을 이었다.

평안북도 덕천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린 나이에 한학을 통해 일찍 문리를 터득하였으며, 1938년 20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탄허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대산수련원을 졸업하고 참선수행에 전념한 뒤 1945년 상원사 총무, 1953년 상원사 주지를 거쳐 1954년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서고 1956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한 뒤 오대산수도원을 설립하여 승려의 자질 향상에 힘썼다. 한국전쟁으로 불타버린 월정사 적광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을 복구하여 오대산문의 불교문화를 재건하고 오늘에 이르게 했다. 1983년 12월 11일 세수 64세, 법랍 45세에 입적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불교의 큰 버팀목이었던 오대산 삼대 화상의 삶과 수행을 되새겨보고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033)339-7000.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日, 방치된 '민폐대불' 논란

버블 경제 당시 불사 유행
최근 방치 문제 다시 대두

박영빈 객원기자



'민폐대불'로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우사미의 관음상. 사진출처=일간 SPA

경제호황을 누리던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대불'들이 관리자의 부재와 경영난 등으로 방치되면서 '민폐대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8월 5일 일본 '일간 SPA'는 폐허가 돼가는 일본 각지의 대불에 대해 보도했다.

버블경제 시기, 일본각지에선 '대불붐'이라고 할 정도로 대불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사찰이나 신심 깊은 사업가가 정식으로 불모에게 의뢰하여 조성한 대불도 있었지만, 대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예경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조악한 대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개중에는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름과 형태만 불교색을 띄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대불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호황이 지나가고, 대불을 조성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재원을 충당하던 사업가나 신도들이 사라지면서 관리자가 불명이 된 대불들은 '민폐대불'이라는 오명을 안기 시작했다. 1977년 아와지시마(淡路島)에 조성됐던 세계평화대관음(世界平和大觀音)이 대표적인 예다. 조성당시 높이 100m의 관음상으로 대불내부에 전망시설을 갖추는 등 화제가 됐으나, 점차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방문객의 감소, 경영자의 사망 등으로 2006년 폐쇄됐다.

개설당시부터 사찰을 표방했지만 실제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교계 측에서도 책임을 지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조악한 조형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흉물로 불렸다. 결국 아와지시마시는 올해 시예산 8억 8천만 엔(한화 약 91억 6천만 원)을 들여 해당 시설의 전면적인 철거를 결정했다.

사찰에서 조성한 대불도 방치된 사례가 늘고 있다. 시즈오카현의 우사미(宇佐美)에 소재한 대불은 지역사찰에서 조성한 대불로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이 50m의 관음좌상이다.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우사미 지역의 랜드마크로 소개 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전대 주지가 조성한 대불이다. 산기슭에 불쑥 튀어나와 주변 경관을 망가뜨리는 데다가, 조성당시 지역의 그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논란이 많은 불상이라 아무리 십수 년을 바라보아도 애착도, 신심도 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대불들의 건축 수명 만료와 함께 관리 부실을 지적한다.

건축학자인 모리야마 다카시는 "일반 건물도 10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버블경제 시기의 대불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건물과 달리 단지 콘크리트와 철근만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아,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재해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中 코로나 확산 방지 빙자, 사찰 폐쇄

감숙성 위치한 티베트 사원
3천 명 이상 거주하는 대찰



강제로 끌려 나가고 있는 카르마르 사원의 스님들. 사진출처=더 티베트 포스트

티베트 불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 지방정부에서 3천 명 이상의 대중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이 강제 폐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님들에 대한 강제환속과 추방이 진행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2일, '더 티베트 포스트', '파율' 등 티베트 뉴스 전문 매체들이 티베트 사찰 강제폐쇄를 특별 보도했다.

중국 간쑤(甘肅)성 융징(永靖)현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사원인 카르마르 사원(중국명 훙청쓰 紅城寺)은 13세기에 지어진 고찰로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싸꺄파의 사찰이다. 원나라의 국사였던 팍빠(八思巴) 대사를 기리기 위해 원 황실이 발원하여 세운 대탑을 지키기 위해 시작하여 전성기에는 3천 명 가량의 대중스님들이 상주했던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카르마르 사원은 19세기에 일어난 민란으로 소실되어 명맥만을 유지, 1950년대에 일시 재건되었으나 곧 이은 문화대혁명으로 다시금 폐사됐다. 그러나 대중스님들과 지역신도들의 꾸준한 발원으로 2006년부터 재건을 시작해 3년만에 옛날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후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신행의 중심지로 전성기와 같은 3천 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함께 머물며 수행 정진하는 도량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융징현 지역 정부는 사원의 폐쇄와 더불어 다수의 대중스님들에 대한 강제환속 및 이주 조치를 집행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당의 명령을 물리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의 출가자나 강사 등의 소임자들에 대해서는 타 사찰로 강제 이주를, 젊은 출가자들에 대해서는 환속이 진행됐다.

카르마르 사원의 스님들은 수행을 지도하던 노스님들과 도반스님들을 눈물로 보내며 '출가자의 강제환속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산문과 법당에서 기도하며 평화시위에 나섰다. 이미 강제로 환속된 일부 스님들도 당국에 가사를 반납하지 않은 채 산문 앞에서 통곡하며 시위에 함께했다.

이 사태에 대해 베이징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작가 체링외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 정보통이 보내온 자세한 내막을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카르마르 사원을 이끄는 고승인 겐쫑 린뽀체는 사원을 중심으로 방역과 구호물자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 보조 등을 위한 기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융징현은 물론 해외의 불자들에게도 호응을 얻어 단기간에 30만 위안(한화 약 5억 3천만 원)의 금액이 모금됐다.

정보통은 "갑자기 거액의 보시금이 모인 것에 대해 지방 당국이 우려와 의심을 표명했으며, 모금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탈세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삼았다"고 전했다. 결국 사원의 기금 프로젝트로 모인 보시금을 지방 정부와 동등하게 나눈다는 것으로 문제는 종결됐다.

하지만 사원에 대한 당국의 불합리한 불시조사가 점점 더 잦아졌고, 점차적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 현지 소식통은 "당국은 사찰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핑계로 사찰을 폐쇄했으며, 스님들을 쫓아내기 위해 사찰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지난해 2곳의 티베트 사찰에 대한 폐쇄를 진행한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승단 코로나19 자원봉사 나서

산소 실린더 배달, 사망자 이송 등 맡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 태국에서 스님들이 직접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이 8월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 불교 스님들은 최근 국가 코로나19 봉사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산소 실린더를 배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안내 봉사 등을 도맡고 있다. 일부 스님들은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이송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방콕 수티 와라람 사원(Suthi Wararam Temple)의 마하 프롬퐁(Mahapromphong) 부주지 스님은 MSN과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은 태국 공동체의 영적지도자로서 사람들은 승가에 의지해 왔다"며 "스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서 돕는 건 당연한 의무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부모를 사찰에 유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 주에서는 80세 노인이 사찰에 남겨진 일이 드러났다.

당시 아버지를 유기한 딸 부부는 "아버지가 콘깬주에 살 때 알게 된 승려와 사찰에서 함께 살길 원한다"며 황급히 절을 떠났다.

이 노인은 사찰에 온 지 이틀째인 7월 27일 사찰 주변 오솔길에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딸 부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인 아버지를 버려 다른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중국화 정책 반발 티베트 억압

분신한 스님 상좌 징역, 구금



트로치크 사원 교구장 꼰메이 스님(왼쪽)과 최근 중국 교도소서 석방된 롭상 텐진 스님. 사진출처=더 티베트 포스트

티베트 불교 수도원 킬티 사원의 롭상 예세(Lobsang Yeshe)와 카냐크 티세링(Kanyak Tsering)에 따르면 티베트 스님 꼰메이(Konmay · 45)가 7월 20일 중국 당국에 원인 불명으로 체포됐다고 티벳포스트(the Tibet Post)가 8월 5일 보도했다.

꼰메이 스님은 티베트 자치구의 아바(Ngawa)현에 있는 트로치크(Trotsik) 사원 교구장으로, 트로치크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출가했다.

그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로, 중국 당국이 티베트의 인터넷과 SNS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체포 이유 등 구체적인 체포 경위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킬티 사원의 롭상 텐진 스님은 중국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복역하다 며칠 전 풀려났지만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롭상 텐진은 2011년 3월 16일 중국의 억압 통치와 중국화 정책에 반발해 분신한 롭상 푼촉 스님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같은 달 23일 체포됐다. 이후 중국 차아바현 인민법원은 같은 해 8월 28일 롭상 텐진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1~8/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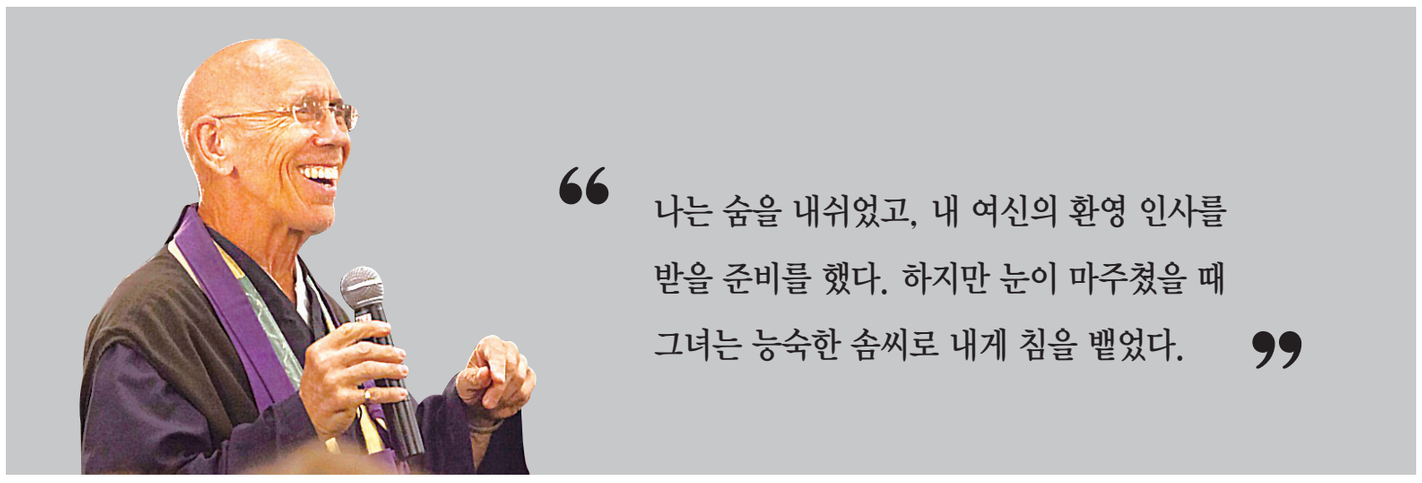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	6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위로
2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7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3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컬러)	초펠	하늘호수	9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지식을 만드는 지식
5	술술 읽으며 깨쳐가는 금강경	하도겸/정호선 외	운주사	10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	틱낫한	불광

책세상

고통은 적 아니다…건너편 행복 고통 통해 느껴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황선효 번역
모네의정원 펴냄
1만4천원



"나는 숨을 내쉬었고, 내 여신의 환영 인사를 받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내게 침을 뱉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베트남 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의 통일 과정서 미국과 벌인 전쟁이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이다.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프랑스와 벌인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1946~1954)과 구분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하며, '월남전(越南戰)'이라고도 한다. 정확히 말하면 남베트남 정부가 붕괴된 1975년 4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 초기에는 북베트남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 정부 사이의 내전(內戰) 성격을 띠었으나, 1964년 8월 7일 미국이 통킹 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을 폭격한 뒤에 전쟁은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 태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등이 참전한 국제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으로 군사개입의 범위를 넓히면서 전장도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 전쟁은 한국과 미국 간에 관심사가 컸던 전쟁이다. 그래서 미국에선 반전운동이 벌어졌으며 영화 〈플래툰〉 같은 문제작도 나왔었다. 우리나라 또한 남의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벌어졌고, 지금도 앓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고엽병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월남전은 누군가가 필히 다룰 만한 소재이다. 문학인들은 그 소재를 다뤄 활자 매체로 발표했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에게 많은 폐해도 남겼지만, 동시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도 전해 주었다.

이번에 모네의정원서 펴낸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은 이런 맥락과 상통한다.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을 전하는 책이다.

전쟁 영웅 지옥같은 트라우마 경험
삶과 고통의 실증적인 깨달음 전해
저자, 틱낫한 스님 만나 인생 변화
수행자로 변화된 생생한 과정 기록

미국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곳의 어른들은 전쟁서 입은 상처를 부인하고 환상으로 짙게 채색시킨 무용담을 마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준다. 그곳서 자란 열일곱 살 어린 나이의 주인공(작가)은 그런 어른들의 영향으로 베트남전에 자원입대한다. 그것이 애국심이라 믿었던 어린 주인공은 전쟁의 광기에 휩쓸리며 불안과 후회에 몸서리치지만, 자신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총을 쏘는 살인 병기로 변신한 채 수많은 훈장을 받은 뒤 전역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환영과 축하 대신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과 수모, 그리고 지옥 같은 전쟁의 트라우마였다.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으며 전쟁 영웅이 된 그는 결국 프랑스 플럼빌리지로 가서 틱닛한 스님을 만나며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 플럼빌리지의 베트남 스님들을 믿지 못해 잠을 자는 텐트 주변에 부비트랩을 설치해 놓고 지냈던 그를 무엇이 평화의 수행자로 변화시켰는지 이 책은 진한 감동과 생생한 증언을 통해 읽는 이의 가슴에 커다란 느낌표를 찍는다.

주인공은 17세 때 미육군에 입대했고, 베트남 복무를 자원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했던 공로로 훈장을 달고 명예롭게 제대해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그런 살육을 멈출 줄 몰랐다. 하지만 삶의 파편들을 이어 맞추다가 전쟁으로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이 세상에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이란 없으며, 올바른 폭력과 그릇된 폭력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전쟁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전쟁이란 단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까지.

주인공이 이런 이해의 경지에 도달하고,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베트남 참전과 노숙자 생활, 교도소서 명상 가르치는 일, 보스니아와 아프가니스탄, 아우슈비츠와 캄보디아에 이르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상처 입은 세계 각지를 순례하는 길고 힘든 여정을 자청했다.

이 책에는 그러한 노정의 생생한 기록들과 함께, 주인공이 공부했던 사원뿐만 아니라 전장의 참호 속에서, 길거리서, 또는 집 안에서 절실히 깨친 고통의 실상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을 나누려는 주인공의 진실한 노력이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구나 좋고, 즐겁고, 옳고, 영원하고, 기쁘고, 조화롭고, 만족스럽고, 손쉬운 행복을 원한다. 하지만 반대로 삶은 좌절과 불만족, 불완전과 슬픔을 안겨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이며, 이 고통과 화해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폭력을 종식시키고 더 평화롭게 세상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주인공은 이 책이 폭력에 시달리는 중에도 뭔가 다른 것, 곧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책이 매일 치르는 자신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진실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외친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며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라고 강조한다.

김재진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누구나 고통은 피하려 하고, 기쁨은 즐기려 한다. 기쁨이 우군이라면 고통은 적인 셈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전쟁의 상흔을 통해 삶의 막장서 방황하던 저자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지옥의 문을 벗어나는지 한 페이지마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좋은 책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탄성을 토하며 읽고 난 뒤의 여운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책 말미에는 '명상수행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저자가 삶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들을 소개해 놓았다. 저자는 다양한 장소에서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노하우를 간략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가령 '앉아서 하는 명상' '걷기 명상' '일 명상' '식사 명상' '주의 깊은 경청과 마음챙김을 가지고 말하기' 등이다.

▲저자 클로드 안쉰 토머스는?

18세에 베트남에 파견되어 27개 항공 훈장과 공군수훈십자 훈장과 명예 전상장을 포함한 많은 상과 훈장을 받았다. 지금 토머스는 조동종 선승이자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의 창립자로서, 미국과 유럽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과 순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풀 한 포기 다치지 않기를〉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치유란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치유란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챙김 속에서 현재에 사는 것이다."

"두려움과 접촉할 때마다 나는 먼저 두려움과 열린 관계를 맺고, 두려움에 집착하지도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아야 하며, 그 다음은 두려움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건 돌을 뒤집는 것과도 같다. 나는 죽는날까지 계속 돌을 뒤집으며, 항상 더 깊이 보아야 한다."

"나 자신의 삶에 더 깊이 참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고통을 거부하는 몸짓을 멈춘다. 이것이 바로 치유이고 탈바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챙김 수행은 내가 판단없이 내 삶의 본모습을 더 올바로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 『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184쪽/값 12,000원

정토에 관한 최초의 논서!
용수보살, 정토를 설하다



– 『이행품易行品』 강의 –
정토사상의 핵심을 다 망라하고 있는 용수보살의 『이행품』에 대해,
그 구성과 내용, 의미, 사상 등을 상세히 설하였다.
혜정법사 법문/정전스님 번역/492쪽/값 23,000원

재가 및 출가 수행의 생생한 체험기!
너울치는 삶에서 달을 건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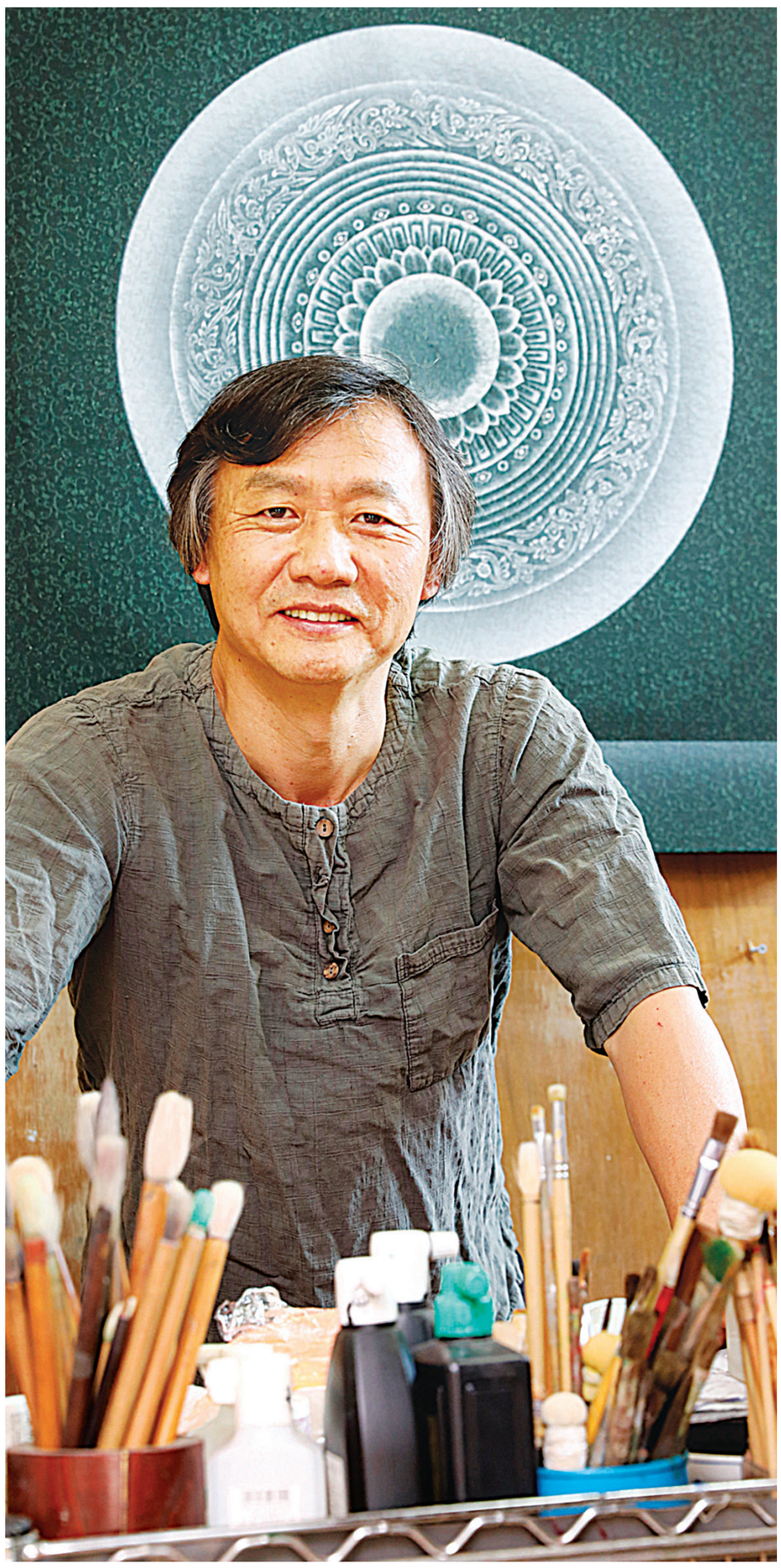


재가 수행자에서 늦깎이 수행자로! 수행 여정에서 만난
각종 장애들과 깨달음, 선지식들과의 인연과 가르침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법운 지음/268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고요와 평온으로 초대하는 門, 滿月

Interview 박경귀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보름달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월(滿月)의 형상에서 그림을 시작하는 화가 박경귀, 그는 하루하루 차올라 마침내 온전한 원을 이루는 달의 모습에서 화가로서의 미학과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성찰의 길을 찾고 있다. 오랜 동안 전통불화와 오늘의 불화를 그리며 한국불교미술 저변을 넓혀온 박경귀 화가가 또 한 번 넓어진 미학과 깊어진 마음을 그림으로 선보인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B관에서 개인전 '觀心의 表象'을 연다. 올해 봄부터 그리기 시작한 만월 그림 10점과 보리수 잎에 그린 표상 20여 점을 함께 선보인다.

"작은 초승달에서 시작하여 커다란 보름달로 변하는 달의 생태가 수행자가 정진하여 마침내 정각을 이뤄내는 모습과 같아 보였어요. 작품 속에 만월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것을 그리거나 바라보면 수행자의 정진하는 모습이 중첩되면서 나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 '만월'은 '나'를 바라보기 위한 표상(表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관불삼매(觀佛三昧)가 있다. 부처님의 공덕과 상호를 생각하고, 관찰하고, 수행하는 참선법이다. 수행자들은 오래 전부터 불상을 깊이 바라보며 관불삼매의 방편으로 삼아왔다. 삼매에 들기 위한 표상으로 불상을 선택한 것이다. 고려시대 불화인 '관경 16 극락 변상도'에는 극락에 도달하기 위한 석양, 물, 땅, 나무, 해 등 16가지의 표상을 그려서 깊게 관하게 하고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삼매'를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이 선해진 상태"라고 했다. 박 작가에게 만월은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표상이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24시간 새로운 정보와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극도로 적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를 쉴 새 없이 접하다보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동시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부로만 향하는 대중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하고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만월 작업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은 오늘의 대중을 보면서 나를 비롯한 대중이 '관심(觀心)'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박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기존 불상의 광배(光背) 속 두광(頭光) 문양을 만월에 그려 넣었다. 특히 5세기 전후 인도와 동방의 각국 불상에 그려진 두광 문양을 옮겨 넣었다. 그 시대에 동방으로 뻗어나간 빛의 여정을 좇았다. 작품명을 '갠지즈강 위의 만월', '다퉁을 밝힌 만월' 등 불상이 조성된 곳의 지명을 붙인 이유도 빛이 머물렀던 곳의 삶과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당시의 불교미술은 인도를 비롯한 동방 곳곳에서 개성 있는 빛깔로 피어나고 있었다. 인도는 굽타 시대로 사르나트나 마투라 지역의 불교조각과 아잔타 석굴의 벽화 등 인도적 불교미술이 만개했다. 한편, 인도의 붓다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집필하여 삼장이 정립되고 삼매 수행이 활발히 일어났다. 동방에서는 다퉁, 평양, 사비, 서라벌, 아스카 등 도시인의 염원이 담긴 불교미술이 새롭게 꽃피고 있었다.

"두광은 부처님의 머리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깨달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우라(Aura)'이자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입니다. 즉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만월에 두광 문양을 그린 이유는 수행자가 불상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상호와 공덕을 생각하고 삼매에 빠지듯, 만월 속에 새겨진 부처님의 빛 문양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월은 원형입니다. 각이 무한히 많아지면 원형이 됩니다. 즉, 원은 무한히 많은 각의 집합인 것이죠. 원은 무한히 많은 각의 집합이어서 조형적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이 없으므로 조형상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 작가에 따르면 원은 중심축에서 테두리까지의 거리가 균일해서 균형이 안정적이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느껴지는 시·지각적 속성이 있다. 만월에도 이러한 원의 속성이 내재하고 있어 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적멸(寂滅)' 혹은 '사마타(Samatha)'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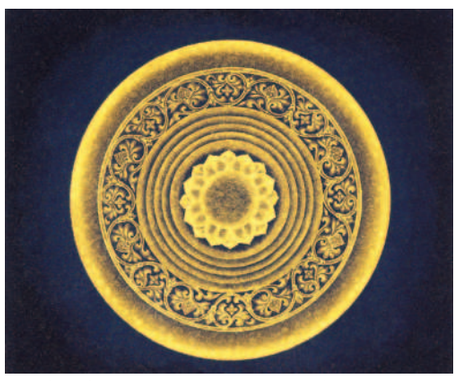
박 작가의 '만월'은 외부로만 향하는 대중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각자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표상으로서의 그림이다. 그는 그런 자신의 그림을 '이타회화(利他繪畫)'라고 소개했다. 감상자를 성찰하게 하는 이타적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의했다. 전통적 불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타적 속성을 지닌 그림이며, 자신의 작업은 이러한 불화의 속성을 동시대인의 조형언어로 변환시킨 '동시대성(contemporaneity) 불화'라고 소개했다.

"관심(觀心)은 고요와 평온에서의 자기 마음챙김이며, 나의 만월(滿月)은 마음을 고요와 평온으로 초대하는 문입니다."

박경귀 화가는 13세 때인 1975년경 가업으로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1984년 스승인 조각가 오윤의 권유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면서 불교미술가로서의 길을 시작했다. 이상적이고 가치중심적인 성향이 종교화인 불화의 속성과 잘 맞았던 그는 청년 시절에 색상과 선에 심취했고 불교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용적으로도 많은 모색을 더했다. 그가 말하는 '이타회화'는 그 모색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창시절에 몰두했던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에 대한 사유에서 태어난 박경귀의 미학이다.

박경귀 개인전 '觀心의 表象'
동덕아트갤러리 8월18~24일
만월 · 표상 등 30여 점 전시

만월에 부처님 頭光 문양 그려
"차오르는 달은 수행자와 닮아,
만월은 '나'를 찾기 위한 표상"



다퉁(大同)을 밝힌 만월, 2021, 문양 천 위에 분채, 80X80cm



동쪽으로 부는 바람, 2021, 모시 위에 혼합재료, 15X15cm

불교미술을 공부하면서 더욱 불교적인 화가가 되기 시작한 박 작가는 1989년 대학 졸업 후 약 20년간 전통불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불화를 함께 모색해왔다. 2016년에 그린 '중중무진법계연기(문양천 위에 분채, 300×500cm)', 2020년에 그린 '지혜의 놀이터(문양천 위레 분채, 230×430cm)' 등은 전통불화의 틀을 넘어선 것으로 실제 불사에서 실현한 현대적 불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작가는 2009년 비영리 갤러리 스페이스선+를 열어 많은 작가들에게 무료로 전시 기회를 제공했다. 다양한 동시대 작가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던 박 작가는 화가로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2014년 개인전 '불이'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의 관계에 대해 사색했고, 2021년 개인전 '관심의 표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깊이 관찰하게 하는 표상으로서의 회화를 모색했다.

현재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작가는 한국불교미술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국민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과정을 진행하며 '이타회화'에 관해 더욱 고민하고 동시대 불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전시문의 (02)732-6458.

[전국 최초 최고불자명품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하반기 신입생 大모집 유튜브 강좌 개강
| 입학식 / 개강 특강 | 2021년 9월 6일(월) 오후7시 |
– 신규탁 교수의 백암록 –

정 규 과 정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 강좌 병행)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학장 스님)
■ 불교엘리트 1기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금강경 (前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 백암록 (3개월, 월 · 수 / 각 30분)
●선종의 최고 과목
■ 화엄경 (6개월, 화 · 금 / 각 60분)
●교종의 최고 과목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조계종 승려 50명)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음식활동, 이젠 명상수행과 접목을”

공만식 동방문화대 교수
〈종학연구〉 발표논문서

불교계, 강좌 · 문화 전파 집중
음식두타행 · 염처수행을 통해
多식탐 · 美식탐 극복 유도해야
코로나 빈곤층 대상 보시 주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님들의 발우공양을 표현한 닥종이 작품. 향후 불교음식활동은 불교음식명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찰음식 활동이 음식두타행 · 음식염처수행 등 현대인의 식탐 · 미식을 제어하는 수행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학과 음식문화학 전공담당 대우교수는 〈종학연구〉 제5집에 발표한 연구논문 ‘불교 음식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지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공 교수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음식 활동의 경과를 분석하고 음식명상수행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언했다.

공 교수에 따르면 불교음식활동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활동 방향설정 · 사찰음식 교육 · 대외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영 레스토랑 ‘발우공양’이 지난 2016년 미슐렝 1스타에 선정된 것도 큰 성과로 공 교수는 꼽았다.

공 교수는 “수행자의 음식이었던 불교음식이 산문을 넘어 일반사회에 알려지고 대중적인 음식문화의 하나로 대중성을 획득했다는 측면에서 관련 스님, 개별 사찰들의 노력과 불교음식활동의 핵심적 중추로 기능해 온 문화사업단의 그동안의 성과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화사업단 등에서 진행하는 사찰음식 강좌나 전문가 양성 과정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강의들은 요리 실습, 메뉴 구성법과 같은 요리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정확한 불교 음식의 정의를 내려 교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 교수는 일반 대중매체를 소개되는 사찰음식들의 특징도 ‘건강 · 약성(藥性) · 제철 및 지역식재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일반사회의 음식에 대한 강조점과 하등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불교음식교육의 부재’를 꼽은 공 교수는 “실물음식인 사찰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은 배우지만 불교문헌이 말하는 식재료 · 요리법 · 음식사 · 음식철학 등은 배워본 경험이 전무하다”면서 “재가자는 차치하더라도 사찰음식을 하시는 스님들만이라도 불교문헌 중심의 불교음식학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 교수는 향후 불교음식활동은 문화 전파에서 맛있는 음식과 많은 음식을 탐하는 미식탐(美食貪)과 다식탐(多食貪)을 극복하는 명상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식두타행’과 ‘음식염처수행(Eating Mindfulness Meditation)’을 제언했다.

‘음식두타행’은 〈청정도론〉 등에 나온 13가지 두타행 중 △상걸식(常乞食) △차제걸식(次第乞食) △일좌식(一坐食) △일발식(一鉢食) △시후불식(時後不食)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실제 이 같은 두타행에 대해 〈청정도론〉 〈유가사지론〉 〈해탈도론〉 등에는 과도한 음식을 탐하거나 미식을 욕구하는 행위들을 제어하게 해준다고 기술돼 있다.

공 교수는 “음식두타행은 템플스테이 상황에서 음식수행의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일발식의 음식량 제한 개념과 일발식의 식사 횟수 제한 개념을 도입해 템플스테이 기간 중 한 끼 식사를 배제하거나 세끼 식사를 하되 평소 섭취량의 2/3~1/3으로 줄여 음식두타행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인에게 음식두타행은 평소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일상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 등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식염처수행’은 ‘염처수행’에 기반한 것으로 음식적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행이다. 현재 ‘음식염처수행’으로 잘 알려진 것은 틱낫한 스님과 릴리안 정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교수가 함께 구축한 프로그램 ‘Eating Mindfulness Meditation’이다. 본래 서구의 사회적 문제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명상이지만 내용은 음식을 보는 순간, 입에 넣는 순간, 씹는 동작 등을 호흡하며 관찰하는 염처수행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7가지 명상의 내용도 인상 깊다. 틱낫한 스님은 음식염처수행에서 △음식에 대한 존중 △먹을 때는 여섯 가지 감각을 사용하라 △적당량의 음식을 담아라 △적은 양의 음식을 넣고 음미하며 충분히 씹어라 △과식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먹어라 △식사를 거르지 마라 △지구를 위해 식물성 음식 섭취를 강조하고 있다.

공 교수는 “음식두타행은 별다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음식염처수행의 경우에는 불교 호흡법과 염처수행에 대한 전문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틱낫한 스님의 음식염처수행에서 보여지듯 음식, 동물권, 환경문제 등에 관한 불교적, 환경적 인식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 교수는 현 코로나 상황에서 불교 교단과 사찰이 음식보시행의 실천을 통해 극빈층을 구휼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고려사〉 의종 6년에는 ‘개국사에서 백성을 위해 음식을 베풀어 구휼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불교교단은 백성들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구휼정책의 집행자로서 음식보시행의 실천자로서 그 활동을 계속했다”면서 “현재 불교교단도 코로나19 극빈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음식보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불교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동국대 불교한문아카데미가 2학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불영 자광)은 “2021년 또 2학기 불교한문아카데미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연수생 모집 원서 접수를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서류는 선발연수생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수강원서,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수료증명서), 승적증명서(조계종 승려)와 일반연수생의 수강원서이다. 지원자는 지원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메일(hanmun@dongguk.edu)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기본과정은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필기시험이 추가된다. 2학기 필기시험은 규봉 종밀의 〈원각경대소석의초〉권제3~4에서 출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출제위원들은 “실시간 비대면으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자마다 각각 다른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형일은 8월 21일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화과정 필기시험과 모든 과정의 면접 전형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는 2012년부터 조계종 교육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불교한문 교육기관으로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번역의 기초를 쌓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매학기 15주 동안 강좌를 진행한다.

기본·심화과정 8월 20일까지 원서 접수
대면·비대면 접수… 전형은 비대면실시

조계종 스님의 경우 수강료가 면제되는데,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하면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성적우수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원은 각각 30명과 15명이다.

2학기 수업기간은 8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각각 과목별로 매일 오후 6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조기룡 불교학술원 교육홍보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간 비대면 강좌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태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대면 강좌도 가능하다”며 연수생들의 학업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재차 강조했다. (02)6713-5154, 5158

신성민 기자

불교상담학회,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 공모

응모마감 9월 30일, 불교심리치유 분야 자유주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 및 콘텐츠’를 공모한다.

논문 및 콘텐츠 주제는 불교상담 심리 및 불교심리치유에 관한 자유 주제이다. 응모 자격 제한은 없다. 불교 상담 심리 관련 전공자와 관련 종사자 혹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접수 할 수 있다. 공모 마감은 9월 30일이며 학회 이메일(kbca08@hanmail.net)로 제출 하면 된다.

학술논문 부분 수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 각 1명씩이며, 대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콘텐츠 부문은 불교상담 관련 영상, 오디오 등의 콘텐츠와 불교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담치유 프로그램 제안서는 제안자와 협의 후 한국불교상담학회가 지원해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콘텐츠 부문 수상자 수는 현재 미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예정인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은 한국불교상담학회 학회지인 ‘불교상담학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게재된다. 이미 발표되었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된다.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 이후라도 연구 내용의 표절이나 중복이 발견되면 선정이 취소된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불교 사상에 입각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연구, 교육, 보급하고자 2008년 창립됐다. 불교 상담 학술 및 콘텐츠 공모는 불교신문 공동 주관 사업으로 불교 상담 심리 및 불교심리치유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현대인의 심리 문제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20년 제정됐다.

(010)4143-442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frac{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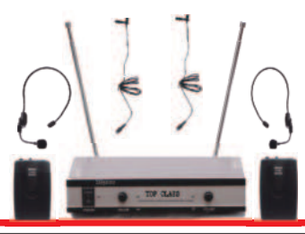

불에 부치고 염불하는
탑클라스 무선 마이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0



▶ **31회 예고**
아쇼까는 궁중연회를 연다. 여러 도시의 관리와 상인들이 참석한다. 상인수장 베디샤데바의 딸 베디샤데비는 집에서 만들어온 웃자인 전통음식을 아쇼까 식탁에 차린다. 연회장에서 베디샤데비는 처음으로 아쇼까를 본다.

아쇼까, 베디샤 상인 수장을 만나다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을 대신해서 웃자인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아반띠국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베디샤나 산찌, 꾸루라가라 등 크고 작은 도시들 상인들도 장사를 개시했다. 반란군은 며칠 만에 대부분 괴멸했다. 아쇼까는 웃자인에서도 탁실라처럼 용서와 응징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투항한 반란군들은 살려주는 대신 노비로 삼았고, 저항한 반란군들은 성민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집행했다.

웃자인 거리는 다시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젊은 남녀 성민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달리는 마차의 방울소리가 요란했다. 마차끼리 부딪쳐 큰소리로 싸우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나타났다. 웃자인 사람들은 다른 도시인들보다 더 거칠었다.

동문 밖에는 화려한 마차와 10여 대의 짐을 실은 수레가 멈추어 있었다. 누구라도 검문검색을 받아야만 동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수문장이 동문 군사들과 함께 마차와 수레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문장이 마차에서 내린 베디샤데바를 보고는 달려와 굽신거렸다.

"부왕님을 뵈러 왔네. 저 수레들에는 부왕님께 드릴 선물과 아반띠국의 전통요리 재료와 진귀한 과일들이 실려 있다네."

"여러 대의 수레를 끌고 오시다니 놀랍습니다."

"베디샤 가네샤신 축제 때 부왕님께 결례를 해서 찾아왔다네."

베디샤데바는 베디샤 뿐만 아니라 아반띠국 상인들이 흠모하는 수장이었다. 사람들은 베디샤 출신인 그를 장사의 신처럼 존경한다는 의미로 데바를 붙여 베디샤데바라고 불렀다.

"데바 수장님, 죄송합니다. 경비대장님께서 당분간 누구든 허락 없이 성문을 출입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왕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인가?"

베디샤데바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말하자 수문장이 쩔쩔맸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경비대장님께 달려가 곧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베디샤데바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문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마차 안에 앉아 있던 베디샤데바의 외동딸 베디샤데비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데비야, 부왕님이 새로 오셨는데 웃자인 분위기가 좀 달라졌구나."

수레를 검색하던 동문 군사들이 베디샤데비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앳된 베디샤데비의 맑고 그윽한 눈빛에 주눅이 들었다. 베디샤데비는 병약한 어머니가 한적한 베디샤나가르에서 요양 중이므로 아버지 베디샤데바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베디샤에서 여신(女神), 즉 데비로 불리는 처녀는 오직 베디샤데바의 외동딸뿐이었다.

베디샤데바에게는 웃자인성 안에도 큰 저택이 하나 있었다. 저택은 웃자인에 들어오는 상인들을 위한 연회장이기도 했다. 산치 부근 베디샤나가르에 있는 농원이 딸린 저택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성민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붉은 벽돌건물이었다.

하인들이 수십 명인 베디샤나가르의 저택은 병약한 아내를 위한 집이기도 했다. 베디샤데바는 아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산치 언덕에 불교사원을 하나 지어주었는데, 데바가 후원하는 사문 10여 명이 사원을 지켰다.

베디샤데바는 아쇼까 진압군이 웃자인으로 갈 때 이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물론 베디샤 사람들이 아쇼까 진압군의 행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필이면 그날 베디샤데바 등이 주최한 가네샤신 축제와 겹쳐서 그랬을 뿐이었다.

경비대장을 찾아간 수문장이 말했다.

"대장님, 베디샤데바 수장님이 동문 밖에 계십니다."

"용건이 뭔가?"

"부왕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쇼까에게 협조하여 왕궁 경비군사의 우두머리가 된 그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눈치가 빠르군. 부자들은 눈치가 빨라."

"어떻게 할까요?"

"부왕님의 지시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잠시만 기다리게."

경비대장이 왕궁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수문장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경비대장의 직권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부왕 아쇼까의 허락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수문장은 자신에게는 물론 평소에 동문 군사들을 회식시켜주는 등 호의적이었던 베디샤데바를 동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경비대장의 보고를 받은 아쇼까는 흔쾌히 말했다.

"문을 열어 주시오. 선물은 핑계이고 다른 용건이 있을 것이오."

"소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데바 수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아반띠국을 위해서 빨리 만나보고 싶소."

아쇼까가 성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는 숨은 반란군의 기습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반란수괴가 사라진 반란군은 괴멸했다고 보는 것이 옳았다. 왕궁 경비대장이 의기양양하게 수문장을 불렀다.

"수문장, 부왕님께서 허락하셨네."

"과연 신임이 두터우신 대장님이십니다."

"데바 수장이 상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허락하셨네."

경비대장은 자신이 아쇼까의 허락을 받아냈다고 공치사했다. 수문장은 아무래도 좋았다. 바로 동문으로 달려간 수문장은 군사들에게 지시했다.

"동문을 열고 데바 수장님 일행을 맞아들여라!"

마차와 수레들이 일제히 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베디샤데비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유난히 흰 치아가 붉은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났다. 마차가 방울소리를 울리며 달리자 성민들이 구경거리라도 된 양 모여들었다. 베디샤데바의 저택은 왕궁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살라나무 숲 속에 있었다. 저택의 정문을 지키던 문지기와 하인들이 달려와 마차를 에워쌌다. 베디샤데바가 말했다.

"수레의 짐을 풀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베디샤데비는 연회장을 지나 바로 2층 방으로 올라갔고, 아버지 베디샤데바는 걸어서 왕궁으로 갔다. 마침 경비대장이 궁문에 있다가 베디샤데바를 알아보고는 말했다.

"데바 수장님, 오랜 만이오."

"축하드리오. 대장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소."

"축하받을 사람은 데바 수장님이오."

"왜 그렇소?"



"부왕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손님이오. 부왕님은 데바 수장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했소."

"아, 영광이오. 저도 어서 뵙고 싶소."

베디샤데바는 궁문 안에서 궁문 군사에게 형식적인 몸수색에 응한 뒤 경비대장을 따라서 부왕의 접견실로 들어섰다. 접견실은 여러 도시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치장하고 있었다. 커튼은 바라나시에서 생산하는 공작이 수놓아진 비단이었고, 탁자와 의자는 짬빠성에서 단단한 짬빠까나무로 만든 최고급품들이었고, 시바신상, 비슈누신상, 가네샤신상 등은 꼬삼비의 흰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이었다. 베디샤데바는 무역을 하러 여러 나라를 다녀봤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았다. 경비대장과 베디샤데바가 잠시 접견실에 서 있는 동안 시녀들이 탁자 위에 짜이 세 잔을 놓고 갔다.

이윽고 아쇼까가 접견실에 들어와서 말했다.

"그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했소?"

"부왕이시여, 영광입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저는 사끼야족 후손으로 베디샤에서 살고 있는 바이샤입니다. 지난 가네샤신 축제 때 부왕님 군사의 행군을 잠시 막은 결례를 범하여 용서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베디샤데바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쇼까가 큰소리로 웃었다.

"미안해하지 마시오. 가네샤신이 나에게는 웃자인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지혜를 주었고, 그대에게는 나를 만날 수 있게끔 행운을 준 것이오."

베디샤데바는 아쇼까의 인품에 안도했다. 경비대장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데바 수장이 진귀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왕이시여, 먼 길을 오신 부왕님께 조그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왔사옵니다만."

경비대장이 또 말했다.

"데바 수장은 선물에 이어 아반띠국 전통요리 재료와 과일을 수레 10대에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왕궁으로 들여도 되겠습니까?"

아쇼까가 짜이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대는 웃자인 부왕인 나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 같소. 경비대장은 데바 수장이 가져온 아반띠국 전통음식 재료와 과일로 오늘 저녁 당장 연회를 열도록 하시오."

베디샤데바는 아쇼까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다. 전통요리 재료와 과일을 가지고 왔지만 연회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아쇼까가 경비대장에게 눈짓으로 지시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말했다.

"저녁에 연회를 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오. 수레에 가지고 온 것들을 왕궁으로 보내시오."

"지금 바로 수레를 보내겠소."

아쇼까가 먼저 일어나 접견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베디샤데바가 말했다.

"부왕이시여,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 보시오."

"제 딸도 연회에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딸은 아반띠국의 전통요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아반띠국 전통요리 맛이 어떤지 기대하겠소."

경비대장은 궁문까지 베디샤데바를 안내한 뒤 경비군사 두 명을 붙여주었다. 베디샤데바의 수레들을 왕궁까지 데리고 올 경비군사였다. 저택으로 돌아온 베디샤데바는 팔을 휘휘 저으며 하인들을 불러 지시했다.

"저 수레들을 모두 왕궁으로 끌고 가라. 경비군사를 따라가면 된다."

"데바 수장님, 알겠습니다."

베디샤데바가 저택 베란다에서 수레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자 베디샤데비가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부왕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괴롭힐 분은 아닌 것 같더라."

베디샤데바가 지난 왕들에게 크게 당한 억울한 사건만 해도 열 번이 넘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짬빠성의 고급가구들을 들여왔다고 빼앗긴 적도 있고, 웃자인의 보석들을 허락 없이 몰래 베디샤로 빼돌렸다고 압수당하기도 했으며, 바라나시의 비단을 수년간 밀무역했다는 무고로 감옥에 갇힌 때도 있었던 것이다. 붓다를 배출한 사끼야족의 바이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베디샤데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었다.

"데비야, 오늘 저녁 연회에 너도 갈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저도요?"

"부왕님께 네가 아반띠국 전통요리를 잘한다고 자랑했다."

"아버지를 위해 제가 전통요리를 만들어 부왕님께 올릴게요."

"나를 생각하는 네 마음이 기특하구나."

베디샤데비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녀들이 요리하는 부엌으로 가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고, 2층 방으로 올라와서는 연회에 무슨 옷을 입을까 궁리했다. 푸른 비단 옷과 붉은 사리를 걸쳤다가 다른 빛깔의 옷을 입어보기도 했다. 요리할 때 입는 앞치마도 꺼내서 둘러보았다.〈계속〉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⑮ 무식한 행자가 깨달아 부처가 되다



▶ 한줄 요약
경문과 교리에 해박했고 오랜 동안 수행했던 신수를 제치고 일자무식 나무꾼이었던 행자 혜능이 육조가 되었다.

청정불성에 너와 내가 달리 있지 않다

오랑캐 나무꾼이 5조를 만나다

〈금강경〉을 듣고 부처가 되고자 마음을 낸 나무꾼 혜능은 한 달 동안 걸어서 동산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 만났다. 5조가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인데 무엇 하러 왔느냐?"

"저는 영남 신주 사람인데, 부처가 되고자 왔습니다."

"영남은 오랑캐가 사는 곳인데 어찌 부처가 되려 하느냐?"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는지요? 몸은 비록 오랑캐로 스님과 다르지만, 부처의 성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들은 5조는 좌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더 묻지 않고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내어 일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나무꾼 혜능은 오조사의 행자가 되어 방아 찧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대목은 〈돈황본 육조단경〉의 기록이다. 5조는 남방에서 한 나무꾼이 찾아오자 슬쩍 찔러 본 것이다. 그러자 혜능은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답한다. 중국 사람들은 예부터 동서남북 변경에 사는 사람을 오랑캐라 차별하였다. 혜능은 글자를 모르는 무식이자 장돌뱅이 나무꾼이었으니 차별과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부처가 되고자 출가하였으니 5조는 비범한 인물이 왔다는 것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5조 문하에 깨달음 게송 대결

혜능이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5조가 오조사의 1천여 수행자들에게 지시한다.

"세상 사람에게 생사가 큰일인데, 너희들은 종일 공양해서 다만 복만 구하고 생사고해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는구나! 스스로 잘 살펴 지혜가 있는 자는 각자 게송을 하나씩 지어 가져 오너라. 게송을 보고 깨달은 자가 있으면, 그를 6조로 삼겠노라."

5조의 분부를 들은 대중들은 이렇게 말한다. 신수 스님이 있으니 우리가 괜히 애써서 게송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가 교수사이고 뛰어나니 게송을 지어 인가 받아 6조가 되면 그에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대중들은 신수 스님을 믿고 아무도 게송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교수사 신수 스님의 고뇌에 찬 게송

교수사 신수(神秀, 606~706) 스님은 일찍 출가하여 불경과 유교 경전까지 통달하고 5조 문하에 선을 공부하러 와서 교수로 있었다. 그는 학식과 덕망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인물까지 좋아 대중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오조 대사가 깨달은 지혜로 게송을 지어 오라 했지만, 대중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깨치지 못했으니 게송을 지을 수가 없었다. 몇날 며칠을 고뇌하던 신수 스님은 마침내 대중이 아무도 보지 않는 야심한 밤에 조사당 회랑에 몰래 게송을 이렇게 써놓았다.



신수와 혜능이 게송 대결을 펼친 오조사 조사당 앞 회랑.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 먼지가 있지 않게 하라.

날이 밝자 회랑 벽에 쓰여진 게송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5조도 보았는데, 아직 깨달은 안목이 아니고, 신수가 쓴 것임을 직감하였다. 하지만, 5조는 이 게송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삼악도(三惡道)는 면할 것이니 대중에게 외우라 하였다. 그리고는 몰래 신수를 불러 회랑 벽의 게송을 썼는지 확인하고 깨달음의 문 앞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했으니 더 정진하여 깨친 지혜로 게송을 지어 오라 하셨다.

혜능 행자의 게송과 깨달음, 그리고 인가

이때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던 행자 혜능은 우연히 한 동자승이 게송 읊는 것을 들었다. 동자승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직접 조사당 회랑으로 가서 그 게송을 보았으나 문자를 몰랐으니 알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이에게 게송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들었다.

혜능이 들으니 〈금강경〉에는 "응당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난다"하는 무아(無我)와 무주(無住)를 깨달음이라 하는데, 이 게송은 몸과 마음을 나누어 있다고 보는 유아(有我)의 입장이라 깨달음의 게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 **5조의 깨달음 게송 대결서**
> **무아무주의 깨달음 드러내**
> **대중을위한 마음이 깨달음**

신수 스님의 게송에는 나도 있고 티끌과 먼지도 있다고 보아 부지런히 털고 닦는 수행을 말하는 것이지 무아를 깨달은 게송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혜능은 자기도 게송을 하나 지어 글 아는 이에게 부탁하여 쓰게 하니 이렇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끌이 있으리오.

이 게송을 보고 대중들은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5조는 이 게송을 보고 혜능이 깨달음에 가까워졌음을 알았으나 짐짓 대중에게는 이 또한 깨달은 게송이 아니라고 한다.

혜능, 〈금강경〉 듣고 6조가 되다

5조는 몰래 방앗간으로 가서 혜능에게 밤 삼경에 조사당으로 오라 하였다. 야밤에 혜능이 조사당에 가니 5조가 〈금강경〉을 읽어주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대목에 이르러 혜능이 확철대오하니 드디어 생사윤회를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 부처가 되었다. 5조는 마침내 혜능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6조로 부촉하며 증표로 달마대사의 가사와 발우를 전하였다. 그리고는 이 도량에 있으면 (무식한 행자가 깨달아 6조가 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대중이 너를 헤할까 염려 되니 바로 남쪽으로 가서 전법하라며 양자강 나루터까지 배웅하였다.

6조는 혜능 아닌 신수라는 주장들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만나게 된다. 바로 문자도 모르는 행자 혜능이 어떻게 박식한 교수사 신수를 제치고 깨달아 6조가 되었단 말인가? 학문으로 볼 때 혜능 행자는 유치원생이고 신수는 대학 교수급이니 비교 불가다. 행자 혜능의 6조 부촉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당시 오조사에서도 그러했던 모양이다. 〈육조단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5조는 혜능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만나 깨우치고 인가한 뒤 야밤에 도주하다시피 절을 떠나게 한다. 이것은 모두 대중의 안목으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오랑캐 혜능의 6조 부촉은 지금 불교학계에서도 일부이나 "혜능 6조설은 허구이자 역사 날조"이며, "신수가 정통 6조"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종립대학의 교수나 박사학위 논문, 저서 등에서도 이런 주장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은 불교와 선에 입문하려는 초심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일부 학자의 이런 주장은 20세기 초, 돈황 막고굴에서 당나라 시대 〈육조단경(후일 돈황본이라 함)〉를 비롯하여 고문헌이 다수 발견되고 대만 학자 후스(胡適, 1891~1962)가 이 고문헌을 연구하여 "6조 혜능설은 조작"이며, "신수 6조설"을 주장하여 학계에 등장하였다. 일부 일본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지지하였고, 일본에 유학간 한국 학자(승)들도 이 견해를 받아들여 "〈육조단경〉도 신회가 창작한 픽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식한 나무꾼 출신 행자 혜능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6조가 될 수 있느냐?"하는 학문적인 의심과 "혜능의 제자 신회가 북방으로 가서 정치적 혼란기에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6조 신수를 폐기하고 혜능설을 조작한 뒤 신회 자신이 7조가 되는 역사 왜곡"을 하였으며, 돈황에서 발견된 고본 중에 〈신회어록〉과 〈육조단경〉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니 〈육조단경〉은 결국 신회가 날조한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다.

선은 말과 문자로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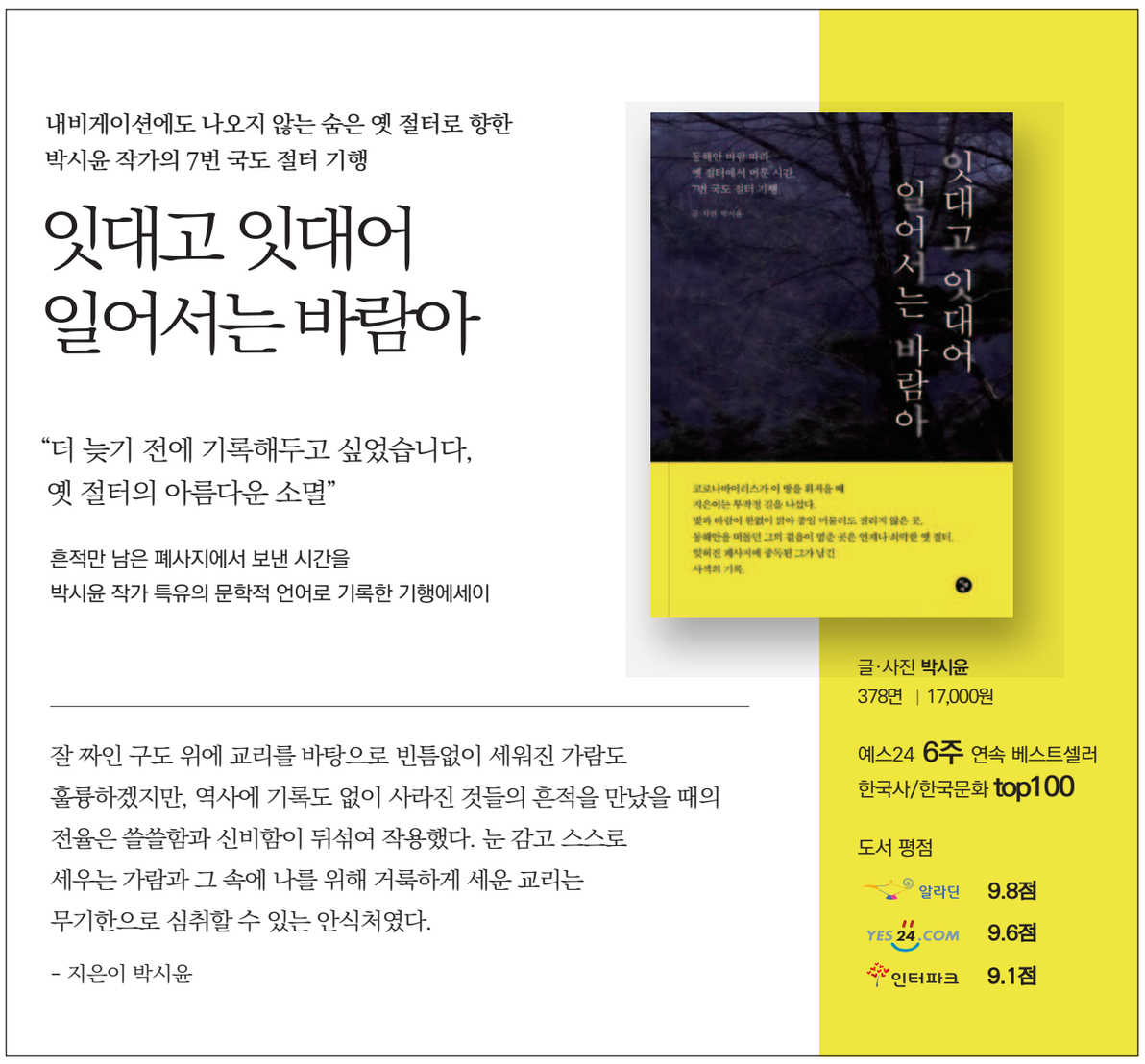
선종의 6조가 신수라는 주장은 선(禪)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조사들은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 한다. 선은 부처님의 깨친 마음이다. 초기경전인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고, 중도는 팔정도이고 무아, 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금강경〉에서는 무주라 하였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치려면 말이나 문자로 된 경전이나 어록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체험과 실천으로만 가능하다. 가령, 금강산을 본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과 글자로 금강산을 설명해주더라도 금강산을 본 것이 아니다. 자기가 금강산을 직접 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깨달음은 말과 문자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더라도 마음으로 체험하고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5조 문하에 신수 교수사가 아무리 경전에 해박하고 통달하였더라도 자기 마음이 그대로 본래 부처고, 중도, 무아, 무주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다. 반면에 방앗간 행자 혜능은 글자를 몰랐지만,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을 깨친 것이다. 교수사 신수는 수많은 불경을 보고 오랫동안 참선하여도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중도, 무아라는 존재원리를 몰랐기에 자기 밖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능은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홀어머님을 모시고 나무를 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일해 왔다. 글자를 알지 못했으니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며 살다가 〈금강경〉을 듣고 발심 출가하여 무아, 무주를 체험한 것이다. 문자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본래 마음을 깨치는 데 지름길이 되었다. 방앗간 행자가 되어서도 경전을 배우지 않고 오직 8개월 동안 대중을 위해 진심으로 방아 찧는 일만 한 것이 그대로 수행이 되었고, 깨달음의 길이었다.

〈불교인재원 교수〉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⑮ 싯달타 태자, '유성출가'하는 날



▶ 한줄요약
잠의 신 오소만이 성안의 주민들을 잠재우자 정거천은 허공에서 내려와 싯달타 태자에게 출가를 청한다. 사천왕과 제석천의 호위를 받으며 출가를 하는 싯달타 태자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자후를 한다.

"보리 못 이루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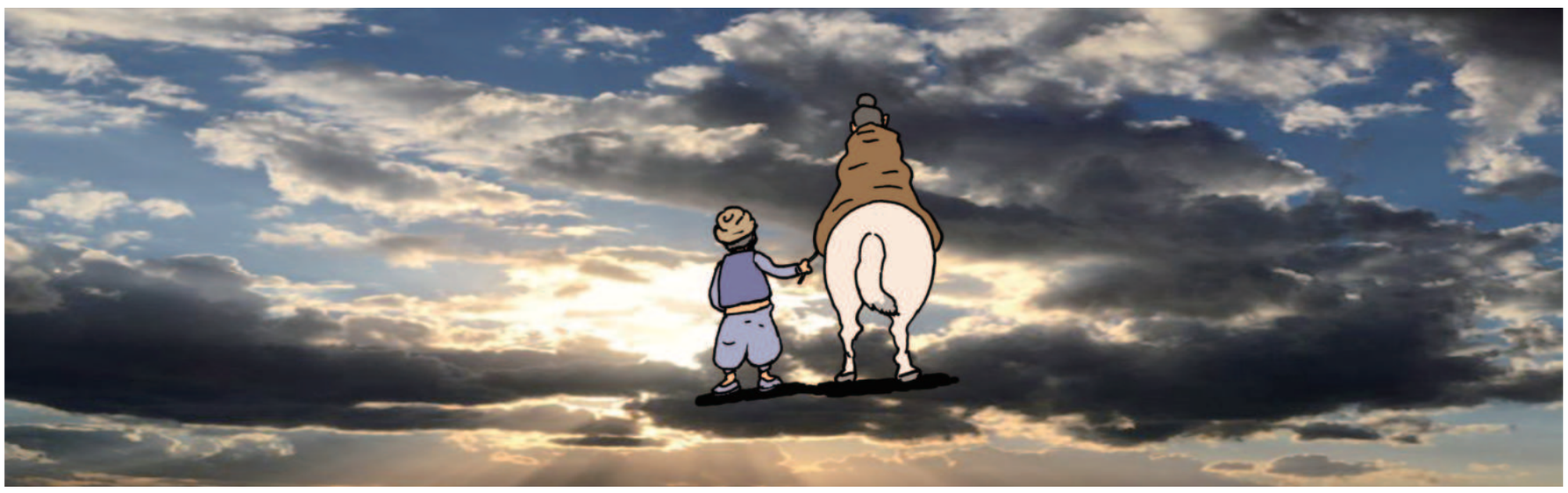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잠의 신 오소만, 주민 잠재우자
정거천, 태자에게 출가를 청한다
사천왕과 제석천이 태자 호위해
싯달타 "正覺 이루겠다" 사자후

오소만이라는 잠의 신이 아름다운 채녀들을 잠들게 한 뒤 추하고 적나라한 모습을 목도한 태자는 아름다움이 환영이나 환상에 불과한 꿈같이 덧없는 것이라 갈파한다. 그리고 출가를 실행한다. 그때 이미 태자의 출가를 알고 내려온 여러 천신들이 그를 호위하며 장엄하는 모습이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정거천과 태자의 출가 선언

그때 정거천이 허공에 와서 태자께 사뢰었다.

"가사이다. 시절이어이다. 세간에 오래 즐거이 계시지 못하시리니 오늘날 일체 제천이 원하옵건대 출가하시어 성인의 도리를 배우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태자께서 일어나실 적에 앉아 계시던 보배로 만든 평상(寶牀)을 돌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맨 마지막에 오욕(五欲)을 타고 태어난 곳이다. 오늘날 이후로 다시는 태어나지 아니 하리라."

태자가 오른 손으로 칠보로 된 휘장(七寶帳)을 쳐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셔서 동쪽으로 돌아서서 합장하시며 일체 제불을 염불하시고 우러러 허공과 별을 바라보셨다.

생로병사의 실상을 자신이 배우가 되어 사문유관을 진두지휘한 정거천이 태자에게 드디어 출가할 시간이 왔다고 알리는 장면이다. 그 말투가 지극히 곡진하여 15세기 화법을 최대한 살렸다. '가시지요. 출가할 시간입니다' 보다 '가사이다. 시절이어이다' 라는 격조높은 선조의 말을 되살렸다.

태자의 결연한 모습도 정말 실감난다. 태자의 자리인 보배로 장엄한 보상에서 일어나 다시는 윤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다. 세간의 부귀영화의 상징인 일곱 가지 보배로 꾸민 장막을 거두고 나와 일체 제불을 염송하며 합장한 채 하늘과 별을 바라보며 서원하는 장면이 경건하다.

사천왕 · 도리천 제석 호위 모습

지국천왕(持國天王)이 건달바들 일체 권속 데리고 풍류하여 동방에서 와 동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지국천왕은 건달바를 거느린다.

수미산 중턱에 있는 욕계육천의 네 하늘의 동방을 관장하는 지국천왕은 선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어 항상 인간을 고루 보살피며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건달바를 협시로 거느리며 그가 주관하는 일체 무리를 데리고 태자의 동쪽 곁에 늘어섰다. 건달바는 '건달' 의 어원이 되는 말로 음악의 신이다. 권속은 'parivāra' 의 의역으로 '뜻을 같이 하는 자 · 보좌하는 자 · 시중드는 자 · 따르는 자 · 종속되어 있는 자' 를 뜻한다. 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증장천왕(增長天王)이 구반다(鳩槃茶)들 일체 권속을 데리고 보병(寶甁)에 향수(香湯) 담아 잡고 남방에서 와 남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향탕(香湯)은 향을 끓인 물이다. 구반다(鳩槃茶)는 독(毒)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니 증장천왕이 거느린다.

남쪽의 사천왕인 증장천왕은 중생의 이익을 넓고 길게 만드는 천왕이라는 뜻으로 불법(佛法)을 보호하면서 만물을 소생시킨다. 특히 증장천왕의 오른 팔 구반다는 지난 번 궁궐 내 모두를 잠들게 했던 오소만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의 정기를 먹는다는 신으로 말 머리에 사람 몸의 형상을 하고 있다.

광목천왕(廣目天王)이 용왕(龍王)들 일체 권속 데리고 여러 구슬 가지고 서방에서 와 서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광목천왕이 용왕을 거느린다.

서쪽을 관장하는 광목천왕은 눈을 부릅뜨고 그 위엄으로 불법(佛法)을 보호한다고 한다. 용을 호위무사로 거느린다.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야차(夜叉)들 일체 권속 데리고 불구슬(火珠)과 등촉(燈燭)을 잡고 갑옷 입고 북방에서 와 북쪽 곁에 합장하여 섰다. 다문천왕이 야차를 거느린다. 화주(火珠)는 불 구슬이니 불같이 밝은 것이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은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하여 다문이라고 한다. 권속을 대표하는 야차는 산스크리트 약샤(Yakṣa)에서 나온 말로 여성은 약시(Yakṣī)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섭고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등장한다. 특히 약시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산치 대탑에 부조되어 있어 놀라웠다. 〈월인천강지곡〉은 사천왕의 호위와 장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오십일장

분과 연지와 꽃으로 꾸민 각시 세간의 풍류를 태자께 보여드리니

보배병과 불구슬(火珠), 불성이 비칠 출가 날에 하늘의 풍류 어떠하시리.

석제환인(釋提桓因)이 제천(諸天)들 일체 권속 데리고 화만영락(花鬘瓔珞)과 당번보개(幢幡寶蓋) 잡고 도리천에서 와 허공에 합장하여 섰다. 석제환인은 제석(帝釋)이다. 보개(寶蓋)는 보배로 된 개(蓋)이다.

석제환인은 제석천을 의미하며 도리천의 왕이다. 그러니까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과 꼭대기의 도리천에 사는 제석천왕이 33천의 천신들을 거느리고 태자 출가에 호위 신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마치 〈삼국유사〉의 탑상편에 '오대산 오만진신' 이 중앙과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투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을 영화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부 차닉이와 애마 건척이

그때 불성(沸星)이 돋아 달과 합해지거늘 제천들이 매우 크게 말하였다.

"불성(沸星)이 벌써 합하였으니 이제 출가할 시간입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다시 사뢰었다.

그때 오소만(烏蘇慢)이 와 있어 성 안의 사람들이며 공작이며 새들까지 매우 피곤해하며 자고 있었다. 오소만은 가위누르다 하는 뜻이니 이것은 구반다(鳩槃茶)인데 졸음의 신령이다.

'불성(沸星)' 은 상서로운 별로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귀수(鬼宿)라고 한다. 여래가 성도와 출가를 모두 이월 팔일 귀수가 어우러질 때에 하므로 복덕이 있는 별이다.

다시 구반다가 오소만이라는 졸음의 신령으로 나온다. 채녀들을 잠들게 해 흐트러진 모습을 본 태자가 출가결심을 굳혔는데 이번에는 사람 뿐 아니라 공작과 새들까지 잠들게 했다는 것이다. 모든 유정들을 잠들게 하는 신이 오소만이다.

태자께서 마부 차닉(車匿)이를 부르니 준마 건척(健陟, 건특)이 안장을 지어 오라 하시니 그때 말도 울고 차닉이도 울었다. 차닉은 종의 이름이니 싯달타 태자와 같은 날에 태어났다.

태자께서 다 울지 말라 하시고 방광하셔서 시방을 모두 비춰시고 사자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과거의 부처께서 출가하심도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태자가 말 타고 나가시니 제천이 말의 발을 받치고 차닉이 따라서 잡으며 개(蓋) 받치고 범왕은 왼쪽에 서시고 제석은 오른쪽 옆에 서시고 사천왕이 호위(侍衛)하여 허공으로 성 넘어 나가셨다.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보리(菩提)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제천이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오십이장

마부 차닉과 말 건특이 태자의 뜻을 얼마나 알리오 어느 누구를 더불어 가시려뇨

차닉이와 건특이 태자 태어나신 한 날에 태어나므로 이 둘만을 더불어 가시니

오십삼장

지나간 무량겁에 수행이 익으셨으므로 보리를 못 이룰까 하는 의심이 없으시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시려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아니 오리라 맹서하시니 이다

오십사장

시방세계 밝고 사자의 소리로 말씀하시고 성을 넘어 산으로 향하시니

사천왕이 뫼시고 말의 발을 제천이 받치고 허공을 타고 산에 이르르시니

세간의 이별이다. 태자와 같은 날 태어나 동고동락하던 마부 차닉이를 부르니 준마 건척(건특)이도 슬퍼하며 따라 울었다는 이야기. 왠지 나도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울컥해진다. 과거의 부처께서도 이와 같이 출가하셨다는 사자후를 하고 말을 탔는데 제천이 '말의 발을 받치다(捧擧馬足)' 라고 나와 있다. 왜 말의 발을 받쳤을까.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 보면 성문을 열고 말발굽소리를 내면 잠든 사람들이 깰까봐서였다.(念開門當有聲°天王維睒, 久知其意) 한문 경전 대조의 중요성이다.

그렇게 범천과 제석천은 좌우 협시를 하고 사천왕이 호위하며 성문을 열지 않고 공중으로 성을 넘어 출가하셨다. 팔상도의 세 번째 그림 '유성출가(逾城出家)' 의 장면을 그리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자후. '보리를 얻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야말로 금강같이 굳은 서원에 제천이 찬탄하였다. 〈석가씨보〉에는 더욱 상세하다. '팔고를 끊지 못하고 법륜을 굴리지 못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不斷八苦, 不轉法輪, 不成菩提要不還°此天讚善哉)' 이것이 조어장부의 기개이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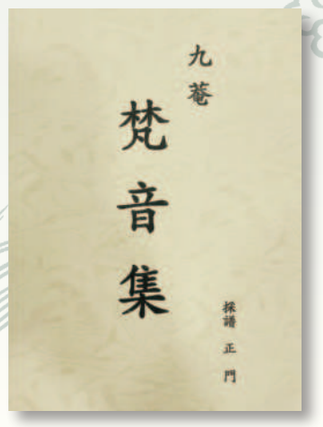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구암스님 범음집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

다시보는 불모지 ❶ 3.1절 · 광복절 특집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석굴암 경성 이운 계획 A to Z

석굴암이 재발견된 것은 1907년입니다. 경주 지역 우편배달부가 일본인에게 이곳에 석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석굴암이 다시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1910년 8월 경주군 주임서기였던 기무라 시즈오에게 한통의 공문이 배달됩니다. 그 공문을 본 기무라 시즈오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석굴암의 불상과 불국사의 불상을 모두 해체해서 경성으로 이운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보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제는 석굴암 불상과 불국사 불상들을 모두 해체해서 감포로 이운한 다음에 배편을 통해서 인천으로 이송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졌던 기무라 시즈오는 결국 조선총독부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무라시즈오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대한제국에 최초로 초빙되어서 외국인 관리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는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경주지역에 있는 고분들이나 유적들을 보존하고 답사하는 신라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평소 그의 지론은 현지의 유물은 현지에 있을 때 그 역사성이 증빙되고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기무라 시즈오가 1924년 발매했던 본인의 회고록 〈조선에서 늙어가며〉에 나와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기무라 시즈오에게 조선총독부의 명령은 사실상 폭력이나 진배없었습니다.

그 뒤로 관제나 직제가 새로 개편되면서 일본인 관리들이 새로 오고 경성으로 석굴암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실무선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의 관점 차이나 이전 비용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라든가 지역의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긴 했지만 기무라 시즈오가 조선총독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일제는 무엇을 하려고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키 준이라는 일본인이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 경주 남산 주제 학술대회에서 석굴암을 대체해서 이운된 비운의 불상들이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 중앙홀에 설치된 유사 석굴암.



아라키 연구원에 따르면 석굴암을 경성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던 장본인인 데라우치 총독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나 정체성론(停滯性論)같은 식민사관의 신봉자이자 대표주자라고 봤습니다.

일선동조론은 한 마디로 일본 야마토 민족과 한국 한민족이 한 뿌리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으로 일본을 좀 더 우위에 놓는 사상으로 황국식민화 정책이나 민족 말살 정책 등에 이론적 바탕이 됐던 사상입니다.

정체성론은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사회주의 사회로의 발전단계가 있는데 조선은 고대사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학자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사회가 일본의 10세기 헤이안 시대 말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렇다 보니 석굴암 같이 아주 유례없이 뛰어난 문화유산을 발견하게 되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선전하게 됩니다.

"일본이랑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했던 신라시대에는 이렇게 뛰어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조선시대 때와서 고대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 국가인 우리가 너희들이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처럼 식민사관의 신봉자였던 데라우치 총독은 한일합병을 기념해서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해서 부수고 석굴암을 그곳으로 이운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데라우치 총독의 석굴암 이전 계획은 무산되지만, 그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석굴암을 대신해 그곳에 세울 대체품들을 찾아다니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박람회가 경복궁에서 열리는데 경복궁 중앙홀에 석굴암과 똑같은 구조의 석실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의 불상들은 대체품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경주 지역에 있는 불상들을 그냥 가져옵니다.

석굴암 본존불을 대신해서는 경주 남산 삼릉곡에 있는 약사여래좌상을 그대로 가져왔고 좌우협시불은 감산사 석굴 입상 2구로 대체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물산공진회 메인홀의 모습을 보면 석굴암과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메인홀 양측 벽에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 모형이 설치됐고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복궁에 석굴암을 세우려고 했던 데라우치의 야망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라키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라우치는 조선왕조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곳에 석굴암을 고스란히 옮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선언할 것을 계획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공진회 미술관을 석굴암처럼 꾸몄다. 데라우치의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은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서 착상된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주 석굴암은 서울로 이운되지 않고 지금도 토함산 자락에서 중생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굴암을 대신해 본래 자리를 떠나 서울로 와야 했던 비운의 불상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입니다.

승려 오타니 약탈 성보 韓도 있다

광복절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온 기쁜 날이죠. 일본이 패망하게 되니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로 귀국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쳐 다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문화재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피터 홉커크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유적들을 탐험이라는 명목 하에 도굴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벤 헤딘, 프랑스의 폰 펠리오, 독일의 알프레드 폰 르콕 등이 대표적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실크로드의 악마'는 단연 이 사람, 오타니 고즈이입니다.

오타니는 원래 스님이었습니다. 교토에 본부를 둔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본산 서본원사의 22대 세습 주지였죠. 그는 1903년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본원사 주지를 세습하고 백작 작위도 계승했죠.

근데 오타니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스님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며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 됐고 이후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여행하며 견문을 쌓았죠.

이런 지식을 가진 오타니는 불교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바라봅니다. 1915년 출간된 〈서역고고도보〉 서문에는 이렇게 써 있죠.

"탐험대를 조직한 목표는 불교의 동진 경로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옛 중국 구법승의 이동로를 찾고,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불상과 불경, 불구 등을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오타니는 1902년부터 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전역의 석굴 벽화 등을 약탈하고 도굴합니다.

지금도 가기 어려운 중앙아시아를 전문 탐험대를 구성해 세 차례 다녀오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돼죠. 일설에 따르면 오타니 탐험대가 10년간 쓴 경비가 교토시의 1년 예산에 필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비는 오타니 본인이 주지로 있는 서본원사가 댔습니다. 사실상 문화재 약탈의 한축을 일본 유명 종단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타니의 탐험대는 세 차례의 원정을 통해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교 석굴



승려 오타니가 베제클릭 석굴서 떼어온 서원화 벽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벽화들을 절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질의 천불동 쿰트라, 베제클릭 석굴 등이 오타니 탐험대가 약탈한 곳들입니다.

오타니라는 사람은 수행자로서 인간적으로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던 인물로, 공심이 없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 차례의 원정을 통해 얻은 문화재들을 전부 자신의 별장인 효고현 니라쿠소에 보관하죠. 하지만 이 유물들은 전부 흩어져 세계 각국 기관에 있죠.

어렵게 모은 유물들이 왜 세계 각국에 있는 걸까요. 바로 교단 비리 때문입니다. 1914년 2월 오타니가 주지로 있는 서본원사 승려 5명이 교단 부속 재단을 유용해 구속됐고 오타니 본인은 책임을 지고 주지직에서 물러나죠.

이후 오타니는 중국 여순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물 중 일부가 중국으로 건너갔죠. 당시 건너간 유물 1714건은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오타니의 약탈 문화재는 존재하는 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 수는 360여 건 1500여 점에 달하죠.

특히 중앙아시아 불교 석굴에서 떼어온 벽화들이 있는데 베제크릭 석굴 서원화 벽화가 유명합니다. 이밖에도 쿰트라, 키질, 미란 석굴 등에서 떼온 벽화들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 그 수가 60건 62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 오타니의 약탈 문화재가 있을까요. 오타니는 가져온 문화재를 자신의 별장인 니라쿠소에 보관하다가 중국으로 거처를 옮기며 이를 가져갔는데 전부 가져가지는 못했죠.

일부가 별장에 남아 있었는데 그 별장도 1916년에 상공대신을 지낸 구하라 후사노스케에게 넘어갑니다. 이 별장이 넘어가며 중앙아시아 유물도 함께 구하라에게 가게 되죠.

이 구하라라는 사람은 광산재벌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를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기증합니다. 데라우치와 구하라는 동향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향 친구라도 공짜로 유물을 주었을리 만무하죠. 일각에서는 조선의 광산채굴권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에 오게 된 중앙아시아의 벽화는 1916년 5월부터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 전시됩니다. 일본 패망 이후에는 이 벽화들과 유물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은 거죠.

참고로 오타니의 별장인 니라쿠소는 1932년 화재로 소실되는 데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저 소중한 벽화들도 사라졌을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겠죠.

오타니의 약탈문화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일제가 수탈해 한국에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도 있죠.

바로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입니다. 종의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조성시기가 북송시대고, 하남성 회경부 수무현 숭명사의 종임이 확인됩니다.

이 종이 어떻게 한국에 온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제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금속류를 강제수탈하고 이를 한국에 들여와 부평 군기창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신앙심 높은 한 불교신자가 이를 다시 전등사로 이운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야만과 이성의 경계에 있었던 근대에서 탐험을 명목으로 자행됐던 문화재의 약탈과 도굴들. 심지어 일본불교 종단의 지원으로 불교 석굴의 벽화가 절취됐던 탐욕의 역사는 전 인류가 되새겨야 하는 아픔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부처가 되지 못할 인연은 없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㉚ 상불경보살의 인사말

최초의 위음왕 여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의 세상에서 잘난 체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더니, 그때 상불경이라는 이름의 한 보살비구가 있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그 무슨 인연으로 이 보살비구 이름을 상불경이라 했는가 하면 이 비구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비구건 비구니건 우바새건 우바이건 간에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존공하며 감히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는 오로지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을 행하여, 멀리서 사부대중을 보더라도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감히 업신여기지 아니 하노니,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였느니라.

이리하여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내거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이가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부어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기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않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 수기를 주듯이 말하는가?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않노라."

이렇게 여러 해를 다니면서 욕을 먹어도 성을 내지 않고 항상 말하되, "그대들은 장차 부처가 되리라" 하니,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져도 피해 달아나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 감히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대들은 다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고 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하므로 잘난 체하는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가 별명을 지어서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법화경〉에서 특이한 이미지를 갖고 등장하는 보살이 상불경보살이다. 보살이면서도 비구이므로 보살비구라 하였다. 먼저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인사말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가 될 것입니다'이다. 항상 업신여기지 않고 존경한다는 뜻으로 이름이 상불경(常不輕)이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법화경〉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해 놓고 있다. 8세 용녀가 성불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만들 때 불상 모양의 장난감을 만들면 이것이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부처가 되지 못할 인연은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신앙 의례에서 예불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 절을 하는 것은 공경을 표하는 것으로 부처님을 받드는 기본 자세이다. 달리 말하면 귀의할 때 취하는 태도이다. 귀의한다는 말이 범어의 나마스(namas)인데 이 말을 보통 '나무(南無)'라고 한자를 써서 읽는다. 이 나무가 예배를 의미하는 말로 귀의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다. 상불경보살의 말은 귀의 · 찬탄의 말로 남에 대한 예의(禮儀)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있다. 사람의 말이란 서술되는 표현의 수준이 있다. 흔히 말하는 이른바 반말보다는 존댓말이 격이 높은 것이다. 상대를 높여 말하는 것이야말로 '나무'를 통한 선행이다. 먼저 존경 찬탄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의업의 선(善)이 되고 입으로 부르는 것은 구업의 선이 된다.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신업의 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무'를 부르며 절을 하는 것이 삼업(三業)의 선이 되는 것이다. 상불경보살은 인사를 하다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구타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 가면서 인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였다. 불교의 수행은 중생의 마음을 성숙시켜 부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자비가 지극해져 이 세상에 적(敵)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를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 한다. 법화경문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전신(前身)의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데바닷타가 과거 생에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생의 인연을 말하는 전신 이야기인데 '상불경보살품'에서도 상불경보살이 과거생의 석가모니의 전신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중생이 누구나 전생, 금생, 내생 삼생(三生)의 인연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이고 내일의 내가 되듯이. 전생이 어제와 똑같은 의미의 과거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와 '율' 구분 않고 '계율'로 총칭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㉚ 중국에서의 보살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는 아시아 전역에 전해졌으며, 그 지역의 자연적 ·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 정착된 불교는 인도와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 계율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에서 계(戒)는 주로 '습관적 행위'를 가리키며, 율(律)은 '출가자의 규율(規律)이나 그것을 수록한 문헌'을 가리킨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계와 율의 의미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계율로 총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살계를 계율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계율에 대한 복합적 인식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일본의 불교학자인 후나야마 도루(船山 徹)는 5세기의 상황을 꼽는다. 이때 주요한 율장이 계속 한역되어 실천 기반으로 쓰이는 한편, 그러한 '소승의 율'과는 별도로 '대승의 계'로서 보살계가 중국의 불교도 사이에 알려지고, 순식간에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인 승려들은 부파의 율장을 교단의 운영 기반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실천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부파의 율장은 실천 기반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당시 중국은 인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무참이 한역한 〈보살지지경〉과 〈우바새계경〉, 구나발마가 한역한 〈보살선계경〉은 대안이 되었다. 담무참에 의해 중국문화권에 처음 전해진 보살계는 지지계(地持戒)로 불리면서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부파 율장과 보살계의 양립은 중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으로는 한인 승려들에 의해 부파 율장 가운데 하나인 〈사분율〉에 근거한 사분율종이 형성되었으며, 그 계통을 이어받아 남산율종 또는 남산종이 융성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살계의 수계(受戒)가 유가계(瑜伽戒)에 의해 중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출가자에게는 5계, 사미 · 사미니계, 구족계, 보살계의 순서로 수계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으며, 재가자에게는 〈우바새계경〉에 의해 수계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본의 불교학자인 모리 쇼우지(森章司)가 지적한 '계(戒) 정신의 변용'이다. 애초에 출가자와 재가자가 공통으로 받들어야 마땅했던 계에, 출가자와 재가자라는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보아도 대승계, 즉 보살계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유가계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보살계는 출가 보살 중심의 〈보살선계경〉과 재가 보살 중심의 〈우바새계경〉에서 모든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보살지지경〉과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로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출가 교단과 재가 신자라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승계 정신의 변용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유가계는 인도 대승계의 정점(頂點)으로 여겨지지만, 중국에서는 부파 율장의 연장선에서 수용 및 변용되어서 그 장점이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범망경〉과 〈보살영락본업경〉에 근거한 범망 · 영락의 대승계가 점차 유가계를 대체하게 된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오키모토 가츠미(冲本 克己)는 두 경전을 〈유가론〉의 통불교적 성격에 대해 순대승적 성격을 간직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여하튼 두 경전이 동아시아불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범망경〉의 십중(十重) ·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는 오늘날까지도 보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⑥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한 생각 멈추면 해탈열반

두 가지 마음장애,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번뇌의 장애인데, 마음을 물들게 하고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입니다. 흙탕물이 뒤섞여 흔들리게 되면 물속을 들여다볼 수 없듯이 객진번뇌로 오염된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여실지견(如實之見)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실지견이란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즉 제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중생의 마음은 번뇌의 장애 때문에 자기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애 때문에 '나'가 있다는 잘못된 사견을 일으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망견을 일으키고 또 표상과 가상과 허상을 진실인양 착각하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소지장(所知障)이라 부르는 무지의 장애입니다. 무지의 장애는 완전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 알지 못하는 장애, 지혜가 없는 장애입니다. 결국 중생의 마음은 이 번뇌의 장애와 무지의 장애로 인해 사견이 생겨나 아견과 법견을 일으키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들고 갈애를 일으켜 악한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로 괴로움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멸하는 마음과 불생불멸의 마음

불자 여러분!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 무명 때문에 업식(業識)이 일어나 끝없이 '생각[念]'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당체인 진여본성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명의 업식에 의해서 생멸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도 진여본성은 생멸하지 않고 부동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의 마음과 생멸하는 중생심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마음의 당체인 진여본성은 불생불멸이라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마음은 무명 업식의 작용이 일어나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불각의 상태가 되어서 생멸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업식으로 인해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고 연이어 망상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보는 마음[주관심]과 보이는 마음[객관심]이 생겨나 주관과 객관으로 이원화되고 이때 보는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는 자아의식이 생겨나서 보이는 경계상을 남[他]이라 생각하며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 사견과 갈애를 만들어서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도윤회세계가 펼쳐지고, 한 생각을 멈추게 되면 그대로가 진여본성 즉 해탈열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의 장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오온가화합으로 된 자기와 세상에 속지 않아서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과보로 인한 괴로움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마음이 생멸하게 되므로 진여본성의 반야지혜가 분별하는 식(識)으로 전변되어서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 오염된 마음으로 변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마음의 장애를 만들어 사견과 망상을 일으켜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로 생사윤회가 있는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무명 업식의 업력에 이끌려 분별하는 생멸심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과 계합상태의 마음으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2호 | 17 | 전면광고

원하건대 부디 법우(法雨)를 내리시어
법의 싹이 널리 돋아나 자라나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읽기 - 《마하마야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공양주 모심
숙식제공
포천 천주사
• • •
010-3220-2915

• • •
공양주 모십니다.
양산 소재
• • •
010-3534-2378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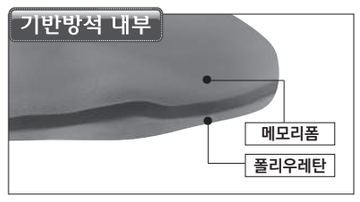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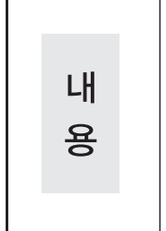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2호 | 18 | 전면광고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대지 230 평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인천 사찰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부산 최고 명당자리
●전시컨벤션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불교용지760평, 대지800평, 전체 계획관리 ●대웅전, 연못, 요사채, 산신각, 대형휴게실, 대형 찜질방3개, 종각, 전각8채, 감곡천척역10분, 대웅전 대형 잔디광장, 요사채별장, 대형정원, 전원주택별장은 신축, 540평 건물, 정원연못, 생광석 찜질방 다양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상담 : 이미정

010-5883-2255,010-3564-6881

사찰터 안내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구 산30-3
●임야 12,429m², 가액 1억 8천 8백이면 사찰 판넬로 건물 지어줄수 있음
●농림지역, 전기, 도로 포장 되어있고 토굴, 암자터 최고, 두릅나무 심어져 있음

010-5454-8315

포 교 원 안 내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3층 건물 / 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 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 / 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 / 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성 배 기 획

●사찰·부동산 전문
●급하신분
●빠른부적
●산신 도통 하실분

010-4490-3544
010-4912-3544

토 지 안 내

●위치 : 괴산 토굴 지을만한 토지
●2차선 도로접, 산밑
●주변시세 평당25~30만원
●급매 5백여평, 8800만원
●주인직접

010-4687-1483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암자·굿당 (급) 안내

●위치 : 삼도봉 맞은편 경상도 쪽 형제봉 중턱 ●대지 : 종교용지 250평 실사용 약 500평 ●건물 : 한옥기와집 2채 약 60여평 새집 ●정남향 폭포 계곡 사철물 콸콸 ●도로 아스팔트 8m 대형버스 다님 ●가격 보신후 결정 시세이하 저렴함 ●주인 직접 부동산 일체 사절합니다.

010-5882-2452(총무님)
010-5807-2452(스 님)

좋은 암자터 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전철 역에서5분거리
●토지670평, 국유림 야산아래 남서향 양지 밝은곳, 전망이 내려다보여 경치가좋음, 야산에 둘러싸여 조용함
●가액 3억3천만원(평당49만원)
●주인직접

010-3531-556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독채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
●시설금 1천3백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건물 : 6동 외 미륵전
●가액 : 18억

010-5330-859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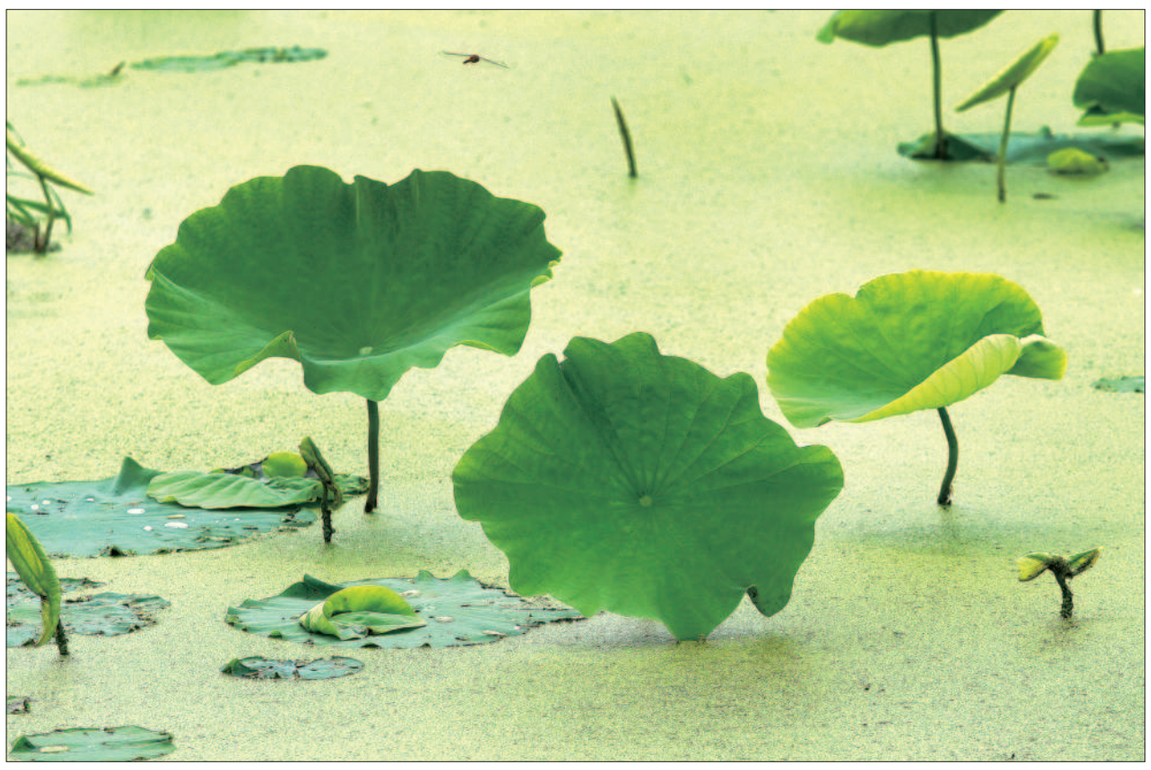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모든 어려움에 고개 숙이고

냉정한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낙담할 이유가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버림을 받아도 버리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욕을 먹고 욕하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개의치 않는 겁니다. 부정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믿지 않고 희망을 믿는 겁니다. 맞아도 넘어져도 억울해도 탈탈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서 망합니다.

보리살타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살타' 라는 말은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역경의 길은 2가지입니다. 받아들이면 사람이 되고 피하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모든 어려움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희망과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소처럼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일은 없어요. 만드는 일 밖에 없어요. 확고하게 뭘 만들지 말고 답을 찾지 말고 할 일을 그냥 하세요. 그럼 깨우칠 거예요. '지나가는 구나' '별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나쁘지 않구나' , 사람들은 잘 몰라서, 자기 업식에 매달려서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해요. 삶이 주는 모든 어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고 하세요. 이것이 수행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⑮ '반장 보이숙차 2007'

체온·면역력 증가시키는, 가을차

연못가에 풀들은 아직도 봄꿈을 꾸고 있는데, 돌계단에 나뭇잎은 가을을 알립니다.(주희, 〈권학문〉) 입추가 지나니 벌써 바람이 달라졌는데 봄인양 여름인 양 찬 음식을 달고 살면 우리 몸은 괴롭습니다. 맑게 살아왔다면 몸이 보내는 조짐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 체온을 올려 줘, 추위를 느낀 다음에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짐을 압니다. 드러나면 이미 늦은 때입니다.

현대인은 저체온인 사람이 많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사용으로 몸이 냉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체온이 1℃ 내려가면 대사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에 노출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1℃ 올라가면 몸의 면역력이 자그마치 5배나 증가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영양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입추가 되면 보이숙차를 꺼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보이숙차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뜻한 보이숙차를 매일 머그컵 2잔씩 100일을 마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초체온이 올라갑니다. 평소에 손발이 찬 사람은 물론이고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도 몸이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차는 자신의 몸에 주는 선물입니다. 자기 몸의 현명함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동안 묵묵히 수고한 자기 몸에, 아직 병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병(未病)의 자기 몸에, 신호를 보내는 자기 몸에, 체온 1℃ 올리기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듯하게 해주는 '반장 보이숙차'

보이차는 생차와 숙차가 있습니다. 보이생차는 윈난 대엽종 차나무의 잎을 따서(채엽) 살짝 시들려서(위조) 솥에 덖고(살청) 손으로 비벼서(유념) 햇볕에 말린 찻잎(쇄청모차)을 덩어리로 압축(긴압)한 것입니다. 보이숙차는 쇄청모차를 쌓아두고 습도와 온도를 맞춰 미생물에 의해 속성 발효하도록 악퇴 공정을 거친 후 덩어리로 긴압한 차입니다. 보이생차는 카테킨의 함량이 높아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탁월하고 보이숙차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기초체온을 높이는 데에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보이차는 생차든 숙차든 10여 년 이상 숙성할수록 맛과 향이 더욱 좋아지고 영양물질도 증가합니다.

보이차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보이차 입문을 주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 값으로 보이차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면 비싼 것은 아니지요? 보이숙차를 매일 1리터 가량 온 가족이 마시려면 가성비 좋은 보이숙차를 찾아내야 합니다. 차나무가 자란 차산 환경이 고산지대 무공해 다원인 것, 차나무도 대엽종 교목으로 수령이 오래된 것, 봄의 신선한 찻잎으로 만든 것, 정갈한 환경에서 10년 이상 잘 숙성한 것, 그리고 가격이 접수 가능한 것. 보이차 탐정이 되어 돋보기를 들고 찾아낸 차가 '반장 보이숙차 2007' 입니다.

'반장 보이숙차 2007' 은 범반장 지역의 병배차입니다. 신6대차산의 대표인 맹해 포랑산의 찻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장' 이라고 부릅니다. 맹해 포랑산은 보이차의 황제인 노반장이 나는 곳이지요. 노반장이 워낙 귀하다보니 노반장 인근 지역의 신반장, 반분 등 '반' 자 돌림의 찻잎도 귀한 대접을 받지요. 이들을 범반장 지역이라고 합니다.

'반장 보이숙차 2007' 은 노차수 봄차입니다. 교목형 대엽종 차나무라 해도 수령이 중요합니다. 차나무가 오랠수록 차가 달고 부드럽고 풍부합니다. 차나무 수령이 100년이 넘으면 고차수(古茶樹)라 하고 80년에서 100년 사이를 노차수(老茶樹)라고 합니다. 또한 봄차를 최고로 치고 다음은 가을차이며 여름찻잎은 우수차(雨水茶)라 하여 싱겁고 맛이 엷어서 고급차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찻잎으로 보이차를 만들었으면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어른으로 숙성하기까지 시간과 공간이 중요합니다. 보이차는 후발효차이기 때문에 시간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정갈하고 온도 · 습도가 적당한 숙성공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10년에서 수십 년 여름 장마를 건너가야 하는데 자칫 상대습도가 70% 넘는 날이 며칠 지속되면 과습되어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습니다. 광둥이나 윈난에서 습창으로 보관한 차보다 한국에서 건창으로 보관한 차가 더 맛있는 까닭입니다. '반장 보이숙차 2007' 이 바로 그런 차입니다. 윈난 맹해에서 보이숙차 병차를 만든 후 한국의 산 깊고 물 맑은 지리산 전문 숙성 창고에서 15년간 숙성하여 차가 맑고 달고 향기롭습니다.

'반장 보이숙차 2007' 은 끓여 마실 것을 권합니다. 전다법(煎茶法)입니다. 1) 게르마늄 주전자나 옹기약탕기에 물 1리터를 끓입니다. 2) 물이 끓으면 보이숙차 3.5g을 넣고 10분간 더 끓입니다. 3) 불을 끄고 찻잎이 가라앉으면 따라 마십니다. 4) 다 마신 후 물 500ml를 넣고 다시 한 번 끓여 마십니다.

차는 이름이나 숫자, 포장지만 보지 말고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여 직접 품해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차 입문자로서 좋은 차, 입추가 되어 차를 아낌없이 마시고 체온을 올리고 싶다면 '반장 보이숙차 2007' 을 추천합니다. 1편이 357g이니 3.5g씩 끓인다면 딱 100일을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보이숙차 마시기 1일 1리터 100일 프로젝트' 함께 시작해보실까요?

〈잇다it茶 대표〉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귀병에 퉁퉁 부어오른
5개월 아기의 사투

쓰나미로 터전 잃은 기달씨 부부 첫 아이 유산 후 얻은 쌍둥이
2개월 만에 발병…간병 위해 휴직, 병원비만 매달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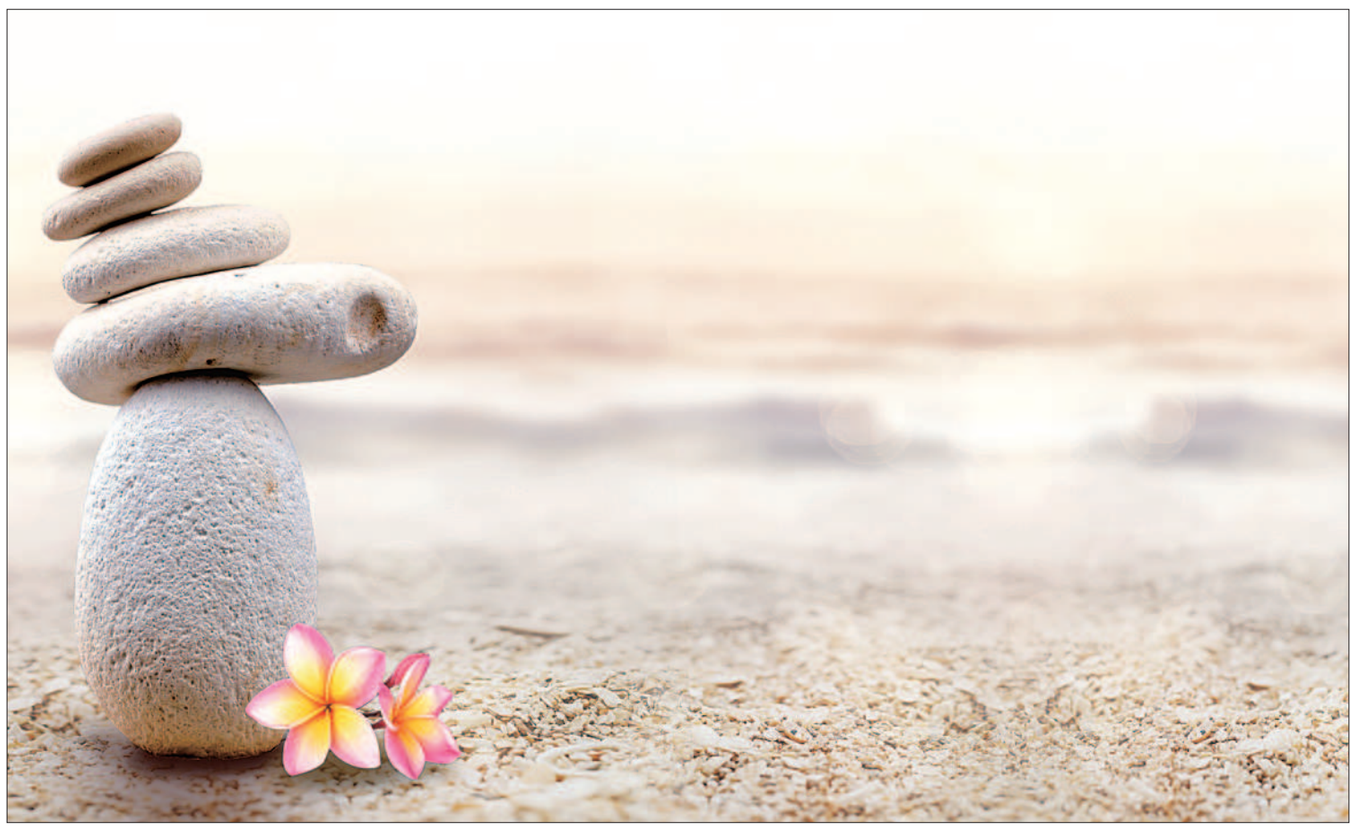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깨어있음이 진정한 평화

▶ 한줄 요약
분노의 자연수명은 90초, 그저 바라보라.

성숙한 눈으로 상처 마주보자



저주라도 하지 않기

행복해지는 방법을 질문한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제안하신 바는 바로 베푸는 삶과 도덕적인 삶입니다. 베푸는 삶은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도덕적인 삶은 열린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도덕적인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통제가 아닌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나아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자신이든, 친구든, 제자든, 원수든 일체중생 모두가 일대사인연을 성취하는 것 단 하나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베풀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착한 일이니 실천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대가 좋아할 일은 무엇인가.
그대가 바라는 기대만으로는
그대의 적이 해롭게 될 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그대의 뜻대로 적이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겠는가.
그것이 그대에게 만족을 준다고 말한다면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6:87-6:88]

보리심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행복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 사고관은 잠시간 쾌락을 선물할지 모르나, 이것이 반복되면 자신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관 자체가 극심한 고통을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보리심을 지닌 보살인 경우, 원수조차 일체지의 행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심 보살의 경우 번뇌에 눈이 멀면 중생 구하기를 굳게 다짐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전생의 어머니들을 저주하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심각한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불이 타는 것이 속성이듯, 중생은 번뇌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을 기원하는 비도덕적인 원념들은 반드시 제어되어야 합니다. 샨티데바 스님은 이 문장을 통해 우리를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 전생의 어머니인 우리에게 부디 행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샨티데바 스님 역시 보리심으로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분노와 같은 낚시꾼이 던져놓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낚싯바늘 같아서
한번 걸리면 틀림없이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가서
화탕지옥에 집어넣고 태워 버릴 것이네. [6:89]

분노는 중생이라는 물고기를 잡을 때 무서운 낚시 그물을 사용합니다. 이 그물은 강한 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물코마다 날카로운 쇠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이 그물에 걸려서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될까요? 쇠가시는 점점 더 물고기의 온몸을 파고들며 강하게 구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갇힌 분노라는 감옥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분노의 자연 수명은 사실 90초 정도라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분노가 올라올 때,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가만히 분노를 바라본다면 90초 후 그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발버둥 치면 분노의 수명은 늘어납니다.

원하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탐욕, 원하지 않는 상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노, 자신이 탐욕과 분노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을 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더불어 우치는 분노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하지만 사라지기를 바라는 분노는 오히려 땔감이 되어 희망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분노가 오래 머무르기를 부탁했던 주인공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원수가 있다면 우선은 그를 저주하는 것만이라도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더 화가 나는 원리를 이해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해봐야 원수에게 효과도 없고, 나 자신의 경험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성과 없는 일을 위해 번뇌의 그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행위를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평정심을 되찾을 때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 중생은 번뇌하는 것이 특징
> 타인 고통 기원 제어되어야
> 우리 자신의 행복이 중요해

분노는 까다로운 무용수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무대가 아니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오직 입맛에 맞는 마음 위에서만 춤을 추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면 분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흔드는 대표적 요인을 팔풍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익과 손해, 명예가 높아지는 것과 훼손되는 것, 칭찬과 비난, 고통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익이나 손해를 볼 때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거나 즐거워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풍은 분노의 무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칭찬과 명성과 명예는

공덕이나 수명을 늘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체력이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신체적인 안락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6:90]

바람의 종류에는 자연풍도 있지만, 선풍기나 부채로 부는 바람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팔풍의 근원도 각각 다른데, 그 근원은 누군가의 말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면 그를 원수로 판단합니다. 물질의 원리가 적용되는 신체적 폭력은 육체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원수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물질의 원리에 해당하는 언어적 폭력인 비난의 말은 몸에도 마음에도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비난의 말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비난의 말을 듣고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때문입니다. 칭찬의 말 역시 몸과 마음에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하며 마음이 만족을 느끼는 것 또한 칭찬을 들은 후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럼 물질의 영역인 재물이 생기는 이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재물의 이익은 마음에 있어 인식 대상입니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호오평등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반응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재물에 대한 이익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면 그것은 재물이라는 대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 때문인가요? 재물로 건강이 좋아진다면 부자들은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재물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부자라고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니니,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마음의 반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이익이 생기면 오히려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재물이 1차 자극이라면, 그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2차 자극입니다. 이때 2차 자극은 행불행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재물이 총알을 장전하는 것이라면 반응은 이 총을 쏘는 것입니다. 재물과 칭찬 그리고 비난 등의 대상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 원인이 아닙니다.

범부는 팔풍의 대상에 일희일비합니다. 중생은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성인은 팔풍으로부터 담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번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중생끼리 싸우고 죽이는 것은 번뇌에 강하게 속박되는 결과물을 만들 뿐입니다. 대웅(大雄)은 자신의 번뇌를 모두 정복한 후 오직 자아를 죽입니다.

음주와 도박 같은 일시적인 쾌락은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나니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네.
[6:91]

팔풍은 역경과 순경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의 순간만이 아닌 순경의 순간에도 마음이 들뜨고 흔들립니다. 사실 역경의 순간에는 고통에 대한 인식 때문에 조심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지만, 순경의 순간에는 뭐든 잘 될 것이라는 오만함 때문에 위험합니다. 중생은 이를 모른 채 그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한순간에 엎어집니다. 순경이 한순간에 역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 분노를 정복하기 위해, 일대사인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살들은 항상 좋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대사인연을 기준으로 모든 경험을 정렬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활방식과 명료한 기준들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줄여주고,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을 낮춥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는 깨어있음이 있기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이 위대한 환희심을 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대사 인연의 길에서만 경험하는 이 달콤함은 음주나 도박같이 일시적인 가짜 쾌락에 집착할 이유가 없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이 맛을 본 자의 미래는 정해졌다. 그는 이 길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대행 스님

천지가 내 중심에 한데 꿰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아니,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죽고 나중 죽을 뿐이지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내쫓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환영을 하고 노비도 두둑하게 주고 그냥 뭐, 팥을 넣어서 찰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스님들이 실컷 먹고도 남았죠, 뭐.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어디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국한된 게 아닙니다. 포괄적입니다. 전체입니다.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계도가 나오더니 금방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밥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먹고, 먹으니까 똥이 나왔고, 이렇게 단계 단계, 그냥 생각대로 사시는 겁니다.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몸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기 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몸이 저절로 일어나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지 몸이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은 바로 주인인 것이고 몸은 바로 그 주인을 따라서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문수, 보현을 모시게 해 놨습니다. 생각을 낸 것을 바로 문수라고 했습니다. 그게 '법(法)' 자입니다. 또 움죽거리는 걸 바로 보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문수 따로 있고 보현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내면 그냥 법입니다. 생각 내기 이전은 부처고, 생각 냈으면 바로 문수고,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그것이 보현입니다. 그러니 보현, 문수,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부처요, 한생각을 잘못하면 중생이다 이 소립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개발이 많이 돼서 문화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해도 그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많은 발전들도 가져오고요.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물질들 이전이 있단 말입니다. 수소 폭탄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이전이 있을 것이요, 그것도 마음대로 구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게 발전이 됐어도 사람 죽이게만 만들어 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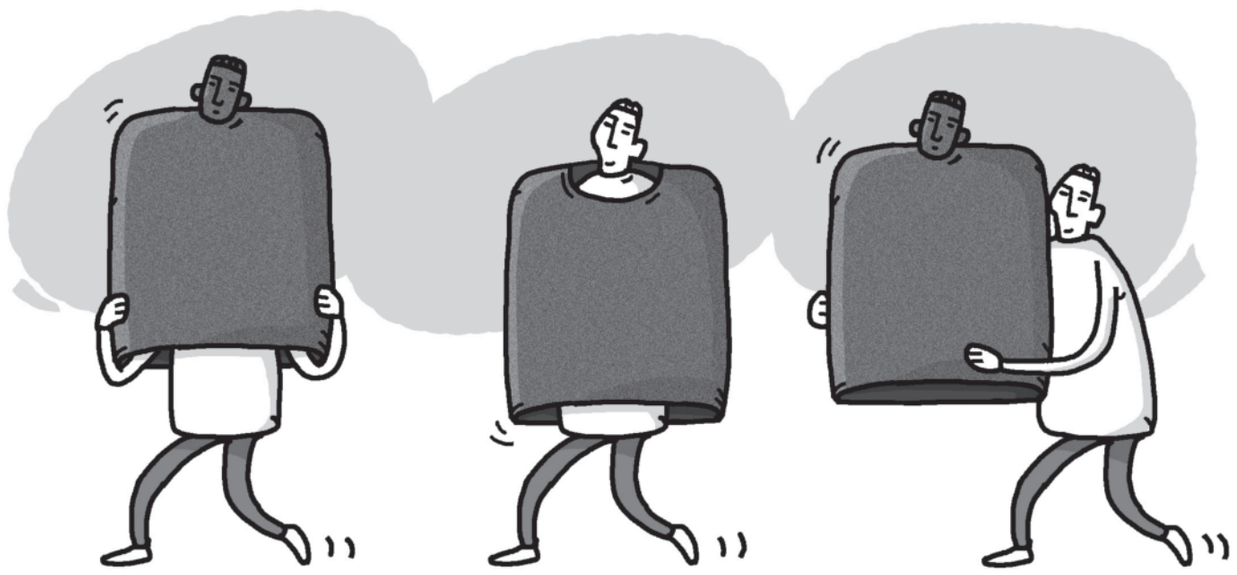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몸뚱이를 끌고 가는데, 몸뚱이를 여러분의 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네 차라면 자기가 더러우면 닦고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지, 그래 누가 대신 와서 고쳐 주고 대신 닦아 줍디까? 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우리들의 집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더럽다고 누가 닦아 주고, 고장 났다고 누가 고쳐 줍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거고, 우리가 닦아야 될 거고,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 겁니다. 지구에서 자원이 모자라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으로 모두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저이는 먹물옷을 입고 별의별 소리, 깡통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겠죠? 하하하…. "저이는 중이면서도 왜 저렇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경전의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러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의 용어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다 있죠. 먼저 유(有)의 법을,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무(無)의 법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한데 합쳐서 바로 중용의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세상의 법이나 무의 법이나 통틀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열반하시기 전에 진짜 부처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옷 벗기 전에 이 진리를 탐구해서 다 감응이 되고 짐작을 하는 차원이 된다면 12대 종손까지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부모의 묵은 빚도 못 갚으셨고 지금 자식들에게 햇빛도 못 주고 계십니다. 몸뚱이나 쓰다듬고 돈이나 줘서 학교나 다니게 하고 재산을 내주는 것이 햇빛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게 '진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은 하루아침에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조그만 어린애 적부터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사대 성인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전부 네 마음속에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저 아빠 엄마가 벌어다 주고 밥해 주고 그런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아프면 "애! 지금 아픈 것도 네 몸에서 아픈 거니까 네 주인공밖에 낫게 해 줄 수 없다고 네가 관해서 네가 나아라."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면 그 어린애가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돼요.

지금 그렇게 체험해서 알아 가는 선원 학생들 중에 어떤 애는 학교에 들어가는데도 30명이 넘는 애들을 제치고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뭐든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안다는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대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해요. 세상에, 이러는 걸 볼 때 내가 외려 고맙고 너무나 기쁘단 말입니다. 걔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기쁩니까? (중략)

하여튼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도 서쪽으로 간 까닭도, 우리가 지금 층층대를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에 층층대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은 볼 일이 있다면 층층대를 올라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이 아파트의 2층이라면 거기 내 집이 있으니까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올라갔죠? 그랬는데 또 내려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고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무엇이냐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봐도 아니 닿는 데가 없죠. 그 두 까닭이 한 까닭이죠. 여러분이 다 그 도리를 아신다면 인제는 어디다 세워 놔도 당당하고 어디다 세워 놔도 싱긋이 웃으실 겁니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보면 보는 대로 놓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지 자신이 없다면 당당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발견한다면서, 지금 20년 30년이 되도록 수박을 놓고 '이거 뭣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박인데도 그 수박을 놓고 자기가 '이거 뭣고?' 하고는 10년도 보내고 20년도 보내요. '이거 뭣고?' 하고요. 지금 '뭣고' 하고 있을 시대입니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바로 참선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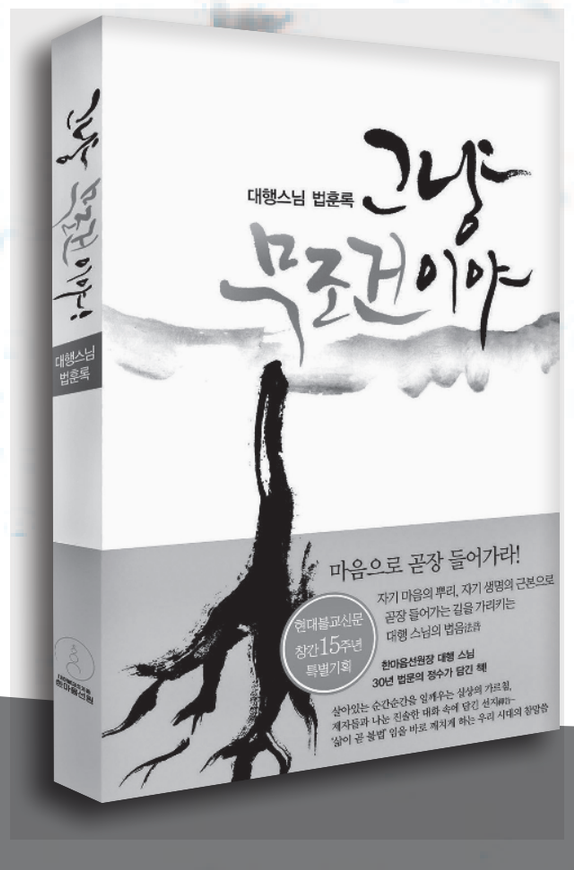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삼계에 내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고 가는 것이 그대로 좌선이니라. 내가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가는 것이 좌선이니라." 이랬죠. 그것이 내 주인공한테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심봉입니다. 맷돌 돌아가는 데도 심봉이 꿰어져야 맷돌이 돌아가지요. 그럼 물건이 생기는 대로 거기다 놓고 갈아 내는 거죠.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맷돌과 같습니다. 천지가 내 중심에 한데 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있어서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막 돌아갑니다. 어떠한 물건이 생기든지 거기다 넣어서 갈아 내서 요리를 해서 먹어라 이겁니다. 이거를 터득해라 이거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그렇게 무조건 수박을 쪼개서 먹어 본다 이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말입니다. 전력 120볼트가 있으면 220볼트가 120볼트를 집어삼키듯 그렇게 뭐든지요. '부처다!' 하고 나타나더라도, 꿈을 꾸더라도 '허, 내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 이끄는 것이로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거기 또 놔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놓는 거예요. 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꿈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잘살 것이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일체 만법이 바로 여러분 한 주먹 안에 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라고 꼬리표를 해서 붙여 놨습니까? 못살 것이라고 꼬리표를 해서 붙여 놨습니까? 못사는 것도 한 철 잘사는 것도 한 철, 높은 것도 한 철 낮은 것도 한 철입니다.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낮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다는 그런 말을 듣지, 얕은 산이 없으면 어떻게 높은 산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것도 높은 것도 평등하니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이 공부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맡겨 놓는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 아까 잠시 전만 하더라도 과거이고 내일도 미래, 이따가도 미래입니다. 모든 건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고 체험을 하고…. 야!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두 번 해 보고, 세 번 해 보고 이렇게 자꾸자꾸 해 보다 보면 그때는 능히 당당해질 수 있고 이젠 죽음도 겁 안 난다고 할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죽음도 겁 안 난다는 거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겁이 안 납니까? 그땐 운전이 아주 능숙해져서 자기 몸뚱이 끌고 가는 거는, 차 끌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 소리와 똑같죠.

질문자1(남) 제가 그전부터 천수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해 왔습니다만 큰스님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천수경을 독송하는데, 끝자리에 "나무상주시방불, 시방법, 시방승" 할 때요, 이 "나무" 할 때 스님이 말씀하신 '내 몸뚱이나 내 의식이나 전부 놓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 의식으로 나타난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것이 법이고, 내가 이 우주에 속해 있는 것이 승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큰스님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아까 내가 아주 간편하게 말씀드렸죠? 생각 내기 이전이 '나무불'이고, '나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심의 평등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평등공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무법'이라는 것은 큰 천체의 법이 그대로, 한생각이 그냥 법이라는 얘깁니다. 그게 나무법입니다. 나무는 천체를 말합니다. '나무승' 하면 이 몸뚱이가 수없이 끝없이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저 나무들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대로 지고는 또 봄에 새잎이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또 지고 또 피니까 '나무승'입니다.

그러니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하고 끝 간 데 없는 우리 살림살이인데 그것이 그렇게 묘하다는 얘기죠. 우리들 전체가 이래 봬도 지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주의 주인일 수도 있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도 우주의 전체 삼천대천세계를 요리를 만들어서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서로서로 이어 주셔서 전체를 공법으로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오백(五百) 일산(日傘)을 한데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삼천대천세계를 그냥 전부 요리를 만들어서 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한테도 한꺼번에 모든 걸 보여 주시고는 깨달은 사람, 그 일산을 바친 사람들한테 신등궁 안에서 천체를 보이고 알게끔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아 줄 수 있지 그릇이 없다면 담아 줄 수도 없죠. 여러분의 그릇대로 담아지는 거지 그릇이 없다면 또 담을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러니 그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을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체 '주인공' 하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일체가 포괄돼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 그대로를 말하죠. 불법승 자체가 그대로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심조차도 언어가 붙지 않느니라 했거든요, 일심이라는 자체도.

달마 대사가 처음에 동쪽으로 오시는데 큰 구렁이가 길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렁이가 사람들을 해칠 듯해서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는 멀찌감치 갖다 놓고는 돌아오니까 자기 잘생긴 몸뚱이 집은 없어지고 아주 그냥 못생긴 집 하나가 남아 있더라지 않습니까? 허허허…. 그 소리도 참, 잘 따지고 본다면요, 그 도둑놈같이 생긴 그 몸뚱이나 이쁘게 잘생긴 그 몸뚱이나 둘이 아닌데…. 그러면 도둑놈도 달마 대사 못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집을 훔쳐가고 자기 집을 남겨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요, 그게 달마 대사가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쓴 말이지 진짜 딴 놈이 자기 집을 훔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은 자기 집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한 찰나에 저 집에 들어가도 저 집이 바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모습도 많거니와 천차만별로 된 그 의식들이 다 천백억 화신으로다가 화한다면…, 그래서 "삼십이상(三十二相)이 구족하면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으로서 구족하다. 삼십이응신이 구족하다면 천백억화신이 들고 나면서 일체 중생들을 다 건진다. 위로는 일체제불과 다 한자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 하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 만 명이, 아니 20만 명이 저한테 천차만별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합시다. 일단 여러분한테 "가져온 문제를 재료로 삼아 연구해서 전부 실험하고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했어도 그 갖가지 용도대로 안 보이는 데서의 50%는 항상 충당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충당할 때는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이 가져오는 용도에 따라서 실험하는 대로, 나는 항상 자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한테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용도대로 20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20만 명이라고 요것조것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공, 너나 나나 둘이 아닌 도리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처지, 어떤 것이 돼 가지고 나라고 한다면 부처일 수가 있습니까, 네? 부처는 어떤 국한된, 어떤 부분적 개별적 이름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나툴 수 있을 때 바로 열반입니다. 나투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그것 됐다, 환경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그냥 돼서 돌아갈 때에, 이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무(無)" 했었고, '주인공'이라고 했고, '불(佛)'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쪽으로 온 까닭도 서쪽으로 간 까닭도,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똥 마려우면 똥 누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써 그냥 거길 믿고 '아! 여기서 나를 이끌어 가고 생각을 내게 하는 거다. 나쁘게 생각이 나오는 것은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거기 놓으면 그것도 녹아져 버린다.' 하고 믿고 거기 놓으세요.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잘못으로 돌리고, 모두가 내가 하는 걸로 돌리고 내가 안 했어도 나에게 온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요.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하는 거지 남의 탓 할 게 없죠. 그렇게 돌아가야만 여러분이 일 년이 못 가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모른다면, 바로 어저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는 일도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봐야 뭘 하죠, 들어야 뭘 하죠, 또 먹어 봐야 맛을 알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소리지만, 천둥이 치는데도 귀머거리가 천둥이 어디 있느냐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그것이 천둥 탓이겠습니까? 귀머거리 탓이지요. 그처럼 귀머거리가 언제 천둥 쳤느냐면서 부득부득 우기는 거와 같이 하지 마시고, 석연치 않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허공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장본인인 주인공을 믿으라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여러분 주먹 안에 들어 있어요. 일체 만법은 여러분 주먹 안에 들어 있으니 바로 그 한 주먹에 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주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에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이 있다는데 그 법이 어떠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암 스님께서 아무 소리 없이 손 하나 쳐들어서 가리키곤, 내려 가리키고선 주먹 하나를 척 내보이더니 쾅! 치고는 그냥 가사 장삼 자락이 휙 날리도록 돌아서서 쏜살같이 가시더군요. 야! 참, 그것이 이 세상 모두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면서 평화롭게 평등화하는 이 도리를 그대로 그냥 찍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부처님 계신 데 가 보세요. '여긴 어떡하고 있나 보자. 여긴 어떡하고 있지? 어, 저렇게 하고 있구먼.' 하하하….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엎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쳐들고 있지요? 그래서 일산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여러분의 참자기의 주장자를 받쳤던 거지요. 오백이라 그러는 것도 오(五) 자를 넣은 거는 천체를 말하기 위해서고, 백(百)이라 그러는 것은 전부 평등한 거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산이야, 일산! 그래서 그걸 갖다 받치는 반면에 우리가 있었듯이, 이렇게 들면 전체가 들리고 이렇게 엎으면 전체를 덮고, 한번 굴리면 전체가 굴러간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처님은 한 손을 둥글게 해 놓고는 손가락 하나 척 쳐들고 있는데, 바로 대권을 쥔 그 인장을 들었다 할 수도 있지만 법자를 든 거죠, 법자. 즉 말하자면 대권의 법자. 한 손은 둥글게 이렇게 하고 한 손은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대권입니다. 이 세상천지 삼라만상 대천세계 천체가 그분의 대권이라 이겁니다. 깨달으면 그분만이 아니라 만 명이 깨달았어도 그건 한 분입니다. 한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요 몸뚱이 하나 가지고도 헤아릴 수 없이 그 의식이 많고 모습이 많은데, 어떤 것이 움죽거릴 때 내가 움죽거렸고 어떤 것이 움죽거릴 때 내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몸뚱이 속에서 지금 움죽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하하…. 간장 공장은 댁의 공장이 아닙니까? 위 공장도 댁의 공장이고 심장 공장도 댁의 공장이에요. 그리고 방광 공장, 콩팥 공장, 대장 공장, 소장 공장 전부 댁의 것이지 다른 사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본다면 어떤 공장장은 내 공장장이고 어떤 공장장은 남의 공장장입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한마음의 공장장입니다. 그러니 그 공장장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걸 체험하고 실험한다면 하나하나 거듭거듭 물리가 터지는 거죠. 자기의 노고가 없이 어떻게 이거를 터득합니까?

"너! '무(無)' 자 화두를 가져." 이러는데, 누가 줘서 화두를 받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온 게 태초예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기가 나온 그날이 바로 태초예요. 또 그날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그 자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화두예요.

지금 세상에 '이게 뭣고?' 해야겠습니까? 뭐긴 뭡니까? 자기지요. 자기가 어떤 거냐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진짜 공부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대의정이 나는 거지요. 둘이 아닌 도리를 알려고 자꾸 놓고 가니까 의정도 대의정이 나지요. 무의 세계의 의정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의정을 만들어서, 누가 주어서 의정을 갖는다는 건 그건 빈 맷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물건이 갈아져 나와야 먹지요.

여러분이 이 마음 도리를 아신다면
어디다 세워 놔도 당당하고 싱긋이 웃으실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보면 보는 대로 놓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8월 2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현불 논단 |

중생 향한 발걸음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20년 전엔 스님들의 수행 목표
근래 포교 · 복지 '보살행' 추구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유마거사의 답변, 대비심 발로
십우도 입전수수도 이를 표현

월주대종사, 이 시대 대비행자
'보살행' 목표토록 이정표 세워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국가이다. 무엇이 대승이라는 뜻인가? 대승불교답게 승려들이 대승을 실천하고 있는가? 수행과 대승이 접점을 이룰 수는 없는가? 영원히 해답이 없는 관건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스님들의 70%가 수행에 목표를 두었다. 어느 스님이나 학문을 하던지 포교를 하던지 마지막 귀착지를 선방이라고 대답해 '수행자'라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근자에는 스님들 70%가 중생들을 위한 포교,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보살'이 많아졌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보살행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대승불교도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다. 즉 부처님이 과거생에 보살로서 선업을 쌓은 점을 응용해 자신들도 '보살'이라고 칭하면서 중생들과 더불어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보살들은 자신보다는 남을 인도하고 베푸는 바라밀행을 현실에서 구현코자 하였다.

보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부파불교 승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을 증득하는 아라한(arahat)이다. 아라한이 되면, 6도에 윤회하지 않는 회신멸지(灰身滅智)를 최고 경지에 두었다. 그런데 대승의 보살들은 아라한이 아닌 '부처'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면서 보살들은 열반에 들어 적정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생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사바세계에 돌아오는 것이다. 즉 열반에 안주하지 않는 무주열반(無住涅槃)을 주장했다. 진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열반에 들지 않는 대비천제(大悲闡提)인 것이다.

대승경전의 대표인 〈유마경〉에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왜 병이 났느냐'고 질문하자, 유마거사가 이런 답변을 한다.

"일체중생에게 병이 있기 때문에 나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혹 일체중생의 병이 소멸되면, 곧 나의 병도 소멸될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병에 아파하는 것이요, 그 중생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 · 무차별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비심에서 발로(發露)된 것이다. 〈화엄경〉이나 〈무량수경〉 등 대승경전에 '먼저 중생을 제도하고 후에 성불한다(先度衆生後成佛)'는 사상이 언급되어 있다. 사홍서원만 해도 첫 번째가 '중생무변서원도'이다. 그런데 곽암의 십우도(수행과정을 10개의 그림으로 그린 것)에서는 마지막 그림이 입전수수(入纏垂手)이다. 아홉 번째 그림이 수행해 깨달았다면, 그 다음 열 번째 그림은 중생을 향해 저자거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떠하든 대승보살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번뇌를 떠나 보리를 구할 수 없듯이 중생을 버리고 참다운 세계가 따로 없음이요, 중생 속에서 해탈을 구해야 한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이지만, 법보인 승려에게 중생(불자)이 없는 수행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 이 원리(無住涅槃)대로 살다간 대비행자가 있을까? 답변하자면, 근자에 입적한 월주 대종사다. 보현행으로서 보리를 증득(以普賢行 悟菩提)하신 선지식이다. 스님께서 10.27법난을 겪고, 바람 쐬러 멀리 나가셨다가 이런 서원을 세웠다. "안살림만 할 게 아니라 바깥 살림도 중요하다. 바깥살림을 확대해 챙겨야 한다." 이런 서원을 세운 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대비(大悲)나무'를 수십 그루 심었다. 깨달음을 사회적으로 구현하신 분이다. 한국불교 승려들이 자리(自利)가 먼저가 아니라 이타(利他, 복지사업)를 목표로 하도록 현대의 한국불교사를 변형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 열반에 홀로 머물지 마시고 불쌍한 중생을 향한 발걸음, 어서 내딛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지상의 모든 사건은 물질세계에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의 세계에서 그려진 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재난, 불행, 질병이라는 것도 마음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세계에 있을 때 수정해두면 재난이 재난으로 나타나지 않고, 불행이 불행하게 되지 않으며, 질병이 질병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위대한 큰 공장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노력과 정진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공장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교, 예술, 철학과 사상도 마음공장에서 제조된 생산품입니다.

마음 공장을 관리하는 법을 알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마음이 그린대로 나타나고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통화하고픈 마음에서 핸드폰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음에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현재의식은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의식하는 마음은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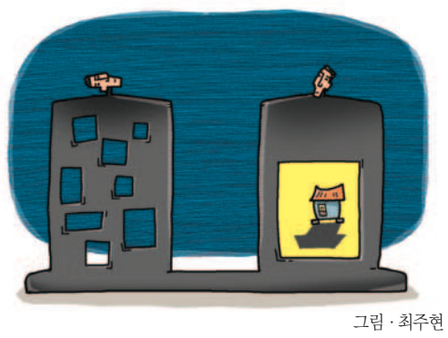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을 하겠다고 의식한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부르지 않는 불행과는 해후하지 않습니다. 유는 유를 부르지요. 인간의 운이 기울기 시작하면 여러 방면에서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명이 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행한 사건을 끌어 들이는 자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끌어들이는 자석을 마음속에서 제거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운명이 좋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한 생명력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어떤 재난을 당하건 외부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달갑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의 마음속에 그 달갑지 않는 것이 있음을 살펴보고, 그 달갑지 않는 성질을 마음속에서 제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변 환경과 건강 상태 등이 자신의 개선된 마음에 따라 변해갑니다.

어두운 마음, 편협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명랑하고 밝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날마다 노트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해외특별교구 활성화 기대한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가 드디어 설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은 지난 2017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을 개정하고 국내 사무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4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해외사찰 수는 더욱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기준 10년만에 해외사찰의 57%가 감소하는 참담한 결과를 목도해야 했다.

특히 2020년은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해외사찰 지원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됐고 교구가 설립된 것은 유의미한 성과였으나, 10년이 지나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셈이다.

本紙는 올 초 해외사찰 수 급감 현황과 원인, 대안과 과제를 분석한 기획기사를 통해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각을 취재했다. 종단 종무행정과 해외 현지상황 및 현지법과의 괴리감을 시작으로 현지사찰들의 여러 어려움들이 지적됐다. 종단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는 일종의 해외포교 활성화의 타개책이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인근 조계종 전법회관 3층이라는 위치도 종단과의 긴밀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전담인력도 배치됐다. 앞으로 국내 사무처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는 이유다.

4년의 기간을 묵힌 후에야 어렵게 탄생한 사무처다. 해외사찰과 해외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종단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범위와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포교 새로운 신호탄 되길

도쿄올림픽에서 불자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불자로 구성된 여자 양궁대표팀부터 남자 김제덕 선수, 펜싱의 김지연 등이 주인공이다.

현재 불교계는 조계종 체육인전법단과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포교를 펼치고 있다. 지도법사와 선수들을 중심으로 불자 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엘리트 스포츠 포교에는 불교계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 법당에서 법회와 마음수행, 심리상담 등을 결합한 포교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한국 불교계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스포츠와 생활 체육 현장을 불교 포교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춤하지만 생활체육인 비율이 높아지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문화가 조성되기에 생활 스포츠 포교가 포교의 새로운 장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먼저 내다보고 달마 스노보드대회를 열어온 호산 스님, 야구단을 운영하는 불암사와 신봉사 등이 좋은 예다.

조계종 산악회와 같이 생활스포츠동호회, 불자회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는 서로 모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훌륭한 방편이다. 불자 개개인이 수행과 함께 건강도 지키며, 불자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종단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린다. 이젠 생활 속 스포츠 포교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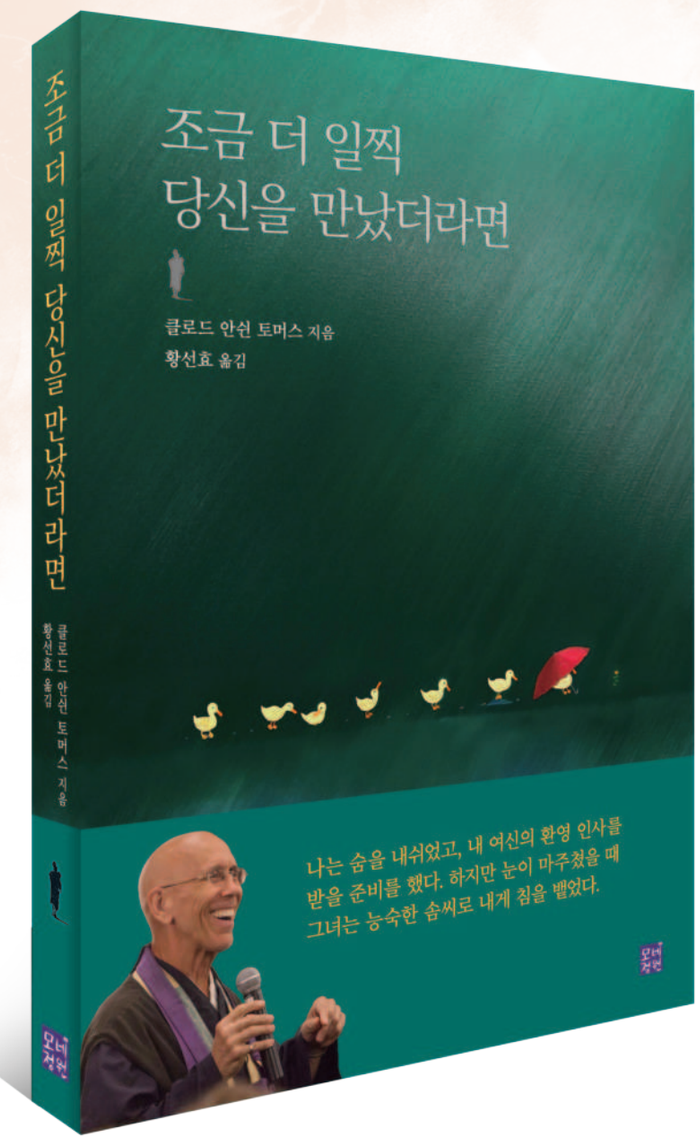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상처난 이 시대를 통절하게 그려낸 한 영혼의 순례기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화제의 신간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누구나 고통은 피하려 하고, 기쁨은 즐기려 한다. 기쁨이 우군이라면 고통은 적인 셈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젊은 시절 전쟁 영웅이 되어 수많은 훈장을 가슴에 매단 채 금의환향했던 저자는 그러나 고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환영 나온 줄 알았던 여인이 다가와 얼굴에 침을 뱉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전쟁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격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저자는 마침내 평화의 수행자인 틱낫한 스님을 찾아 플럼빌리지까지 가지만, 베트남인인 스님들을 믿지 못해 텐트 주변에 부비트랩을 설치해 놓고 잠을 잔다.
삶의 막장에서 방황하던 저자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지옥의 문을 벗어나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책장을 넘기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좋은 책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탄성을 토하며 읽고 난 뒤의 여운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 **김재진** (시인 /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저자)

두려움과 접촉할 때마다 나는 먼저 두려움과 열린 관계를 맺고, 두려움에 집착하지도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아야 하며
그다음은 두려움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건 돌을 뒤집는 것과도 같다.
나는 죽는 날까지 계속 돌을 뒤집으며 항상 더 깊이 보아야 한다.

치유란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치유란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챙김 속에서 현재에 사는 것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